



제25대 徐廷和회장 선출

林光洙회장 용퇴
정기총회 성황



新舊 동창회장 악수 신임 徐廷和회장(左)이 전임 林光洙회장과 다정하게 악수를 하고 있다.

관악출추

대학을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서울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랄까 동문에 애정을 갖게 된 것은 솔직히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졸업 후 상당 기간 과동창 모임에 나가거나 단과대학에서 전해주는 소식 정도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아마도 대부분의 서울대 출신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좋은 일이든 못한 일이든 모교와 동창회에 관한 일이라면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된 것이다. 가령 며칠 전 모교가 세계대학순위 44위에 랭크됐다는 영국 THE의 발표를 듣고 나도 모르게 뿌듯한 자긍심을 느낀 것도 그런 사례의 하나다.

개인적으로 이 같은 의미 있는 변화는 총동창회보 논설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구체적으로 서울대총동창회의 발전은 물론 모교와 동창회 간의 협력 등에서 큰 업적을 남기신 林光洙회장의 열정과 헌신이 결정적인 힘이 됐다. 그리고 보면 林회장께서 총동창회를 이끄신 지난 12년은 모교는 물론 총동창회 모두 일대 전환기적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교는 세계 속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안화가 마무리됨으로써 정부의 규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에 의해 세계 최고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한국 최고'에서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은 모든 서울대인의 염원이자 국가적 숙제이기도 하다. 총동창회의 변화는 더 드라마틱하다. 동문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2011년 랜드마크급 총동창회관 건립을 성사시킴으로써 모교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모교의 '역사 바로 세우기' 노력이 열매를 맺은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의거해 모교가 1백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가슴 뭉클한 경사가 아닐 수 없다. 한때 상당한 세를 얻었던 '서울대 폐교론'을 잠재우는 데도 총동창회의 노력이 컸다.

지난 십수 년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변화와 도전, 그리고 발전의 중심에 계신 분이 林회장이시다. 컴퓨터와 불도저의 합성어 '컴도저'라는 별칭에 걸맞은 '퀵템 점프'의 과정을 지켜본 것은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서울대도 동창회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 가장 소중한 업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3월 21일 徐廷和 前대무부 장관께서 총동창회의 새 사령탑을 맡게 됐다. 총동창회가 33만 동문의 요람으로 일의 번창하길 기대한다. <朴時龍 서울경제신문 부사장·본보 논설위원>

동창회의 힘



지난 3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 본회 제46회 정기총회에 1천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관련기사 3~4면>

느리나무광장

2001년 9·11 테러 당시 접했던 외신 기사 중에 유독 기억 남는 게 있다. 비행기가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충돌하기 직전, 기내에 있던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지상의 가족에게 “안녕! 사랑했어” 작별 전화를 했다는 게 아닌가.

날벼락 맞듯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도 마치 준비된 영화대본을 읽듯 침착하고 우아하게 작별인사를 하면서 죽음을 맞다니... 상갓집에서 울고불고 목놓아 우는 애도에 익숙한 한국인 눈으로 보자니, 죽음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참으로 사회 문화적 차이가 크다 싶었다.

한데 스위스 출신의 미국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는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의 심리적 단계를 ‘부정→분노→타협→우울→수용’ 이렇게 5단계로 규정했다. 수용 단계로 갈수록 성숙한 마음가짐으로 여겨진다. 이 이론을 따른다면, 죽음에 대한 인식 차이는 단지 극복하기 힘든 사회 문화적 특성만은 아닐 수도 있다.

몇 년 전 동유럽으로 출장 갔을 때 비행기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다. 차창 밖 날씨는 비구름도 없이 맑겠

보였는데 착륙을 앞두고 비행기가 30분도 넘게 요동쳤다. 비상시 사용하는 산소호흡기가 절로 떨어지고, 안내방송도 나오질 않았다.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다. 발버둥쳐 봤자 소용없고 그저 닥친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니, 고작 몇 분 남았을지 모를 소중한 내 마지막을 공포에 질려 허둥지둥 흘려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 비행기 짐칸에서 휴대전화 꺼내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를 해야 하나.’

잠시 머뭇거리는 동안, 비행기는 극적으로 착륙했다. 비행기에서 내리니 똑바로 걸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강풍이 몰아쳤다. 유럽 전역을 강타한 돌풍으로 거목이 쓰러

지고, 집이 부서지고, 수십 명이 죽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다. 비행기 타고 돌풍을 맞았던 것이다. 내게도 언제든 죽음이 닥칠 수 있다는 걸 경험했고, 퀴블러-로스의 심리적 5단계에서 1단계(부정)나 2단계(분노)가 아닌 5단계(수용)로 들어서 보니 9·11 테러 당시 미국인의 작별 전화처럼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아름다운 마지막도 마음먹기 따라서는 얼마든 가능했다.

우리 모두 전보다 훨씬 오래 사는 고령사회가 도래했다. 고도 성장 사회에서의 삶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 보다는 더 나은 내일이 늘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저성장 고령화의 생존 코드는 다르다. 어제와 별반 나아진 것 없는 오늘을 감사한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장수가 축복인 여유로운 노년도 있지만, 노인 빈곤률이 높은 한국 사회는 고독, 빈곤, 질병을 떼어내기 힘든 이웃처럼 떠안고 사는 사람도 적지 않다. 나이듦을 부정한다고 청년이 되는 것도 아니다.

‘늙어 가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죽음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수용’하는 단계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좀더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듯, ‘한국인의 마지막 10년’을 어떻게 하면 좀더 낮게 만들까를 고민하면서 개선책을 찾아나가는 사회로 인식 전환을 해야만 고령화 시대의 산적한 문제에 대해 해답을 찾아나갈 수 있을 듯 싶다.

한국인의 마지막 10년

姜 京 希
조선일보 사회정책부장
본보 논설위원



관악시단

새벽바다 안개꽃

孫 海 鎰(잠사67-75)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장

바다는 육지가 그리워 출렁이고
나는 바다가 그리워 뒤척인다
물이면서 물이기를 거부하는
모반의 용트림
용수철로 튀는 바다

물결소리 희디희게
안개꽃으로 빛날 때
아스팔트에 등지 튼 갑충(甲蟲)의 짝지들
나도 그 속에 말미잘로 누워
혁명을 꿈꾼다.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덧없는 날들을 어죽처럼 데불고
시원(始原)의 해구(海溝)로

우리가 어느 바닷가 선술집에서
불혹을 마시고 있을 때
더위 먹은 파도는 생선회로 저며지고
섬광 푸른 종소리에 피는
새벽바다 안개꽃

동문칼럼

우리는 누구나 인격자가 되어 존경받고 싶고, 이루고자는 목표를 달성해 성공하고 싶다.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성공하고 싶고 사업가는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고 싶다. 이런 욕심을 갖고 사는 것은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에 성공의 필수요소지 선택요소는 아니다.

수백 년간 이 나라에서 살고 간 사람들 중 李舜臣만큼 성공으로 존경받고 성공한 공직자로서 추앙받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면 李舜臣이 오늘날을 산다고 가정할 때에도 성공할 수 있었을까? 4백여 년 전의 그 시대보다 오늘날은 훨씬 경쟁도 치열하고 사회는 복잡한데도 李舜臣같은 사람이 과연 국가의 위기를 구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말이다.

나는 능히 성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오히려 4백여 년 전의 李舜臣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오늘날은 적어도 李舜臣이 처했던 당시 상황보다는

키고 나라를 구했으니 그런대로 법이 서 있는 오늘날이라면 그때보다는 더 힘들이지 않고라도 성공할 수 있으리라 추단해 보는 것이다. 오늘날은 오늘날대로 어려움이 많아 이 같은 추단이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나 李舜臣의 성공 요인을 파고 들어가 그의 내면에 이르고 보면 결코 나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李舜臣을 常勝의 장수로 만든 그의 內面의 비밀이란 무엇인가?

그가 나서 죽을 때까지 54년 간의 그 생애를 價値로 압축해 보면 그의 내면의 비밀은 쉽게 추출된다. 그는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고, 지극히 정성된 사람이며, 오직 바른길로 나아간 사람이며 제 힘으로만 살아간 사람이다.

그는 치열한 수양을 통해 그의 내면을 사랑과 정성, 정의와 자력으로 뭉쳐 하나로 하고 그 뭉쳐진 가치들을 순도 100%로 발휘해 개개의 상황에 대처할 적절한 리더십을 뽑아 쓰으로써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그와 같이 내면 가치를 수양으로 정돈할 수만 있다면 어떤 악조건도 능히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으리라 믿



金 鍾 大
(법학68-72)
법무법인 국제 고문변호사

오늘날 왜 또 이순신인가?

더 악조건에서 경쟁하며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李舜臣은 중국 3국시대의 諸葛亮처럼 임명권자(王)가 보살펴주고 받들어주는 복된 환경 속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 아니다. 영국의 넬슨처럼 전 국민이 개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하는 가운데서 성공을 거둔 사람도 아니다. 당파싸움 속에서 王이 그를 죽이려 했고, 부정

한 상사로부터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정의를 지

어 의심치 않는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믿는다. 오늘날도 李舜臣의 성공의 요체는 유효하다고.

그러니 오늘날도 李舜臣을 얘기해야 한다고. 나라 경영이 힘들고 국제 정세가 더 어지러울수록 李舜臣을 더 살려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영원한 우리 공동체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徐廷和
편집인 孫一根
인쇄인 孔大植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장학빌딩 주소: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e-메일 snua1969@naver.com

논설위원 金哲洙,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李慶衡, 李元龍,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許英燮,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李啓聖, 金侁日, 金鎮國, 崔英勳, 吳在錫, 李容式, 許承虎, 李先敏, 金昌均, 全榮基, 李相起, 姜孝祥, 鄭星姬, 金光德, 鄭在權, 申然琇, 姜京希, 鄭然旭, 權石泉, 蔡耕玉, 許文明, 申藝莉, 金伶姬, 洪智英, 金希媛, 李佳穎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金南柱, 林香默, 邊廷洙, 朴秀埭

“모교와 동창회 발전 위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터”

신임 徐廷和회장 취임사 <요지>

저는 오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제25대 회장에 취임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저는 지난 12년 동안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직을 맡아 총동창회의 중흥을 일구신 林光洙회장의 업적과 기조를 이어받아 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해 제 마지막 열정을 다 바쳐 나갈 생각입니다.

이 기간 동안 동창회가 앞장서 국립대학의 역사를 바로잡았고 4백억원에 이르는 동문 모금을 통해 장학발당을 건립함으로써 저희는 정신적 가치뿐 아니라 가시적으로도 유례없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모교를 세계 수준의 종합 연구 대학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不辭晝夜 애쓰고 계시는 吳然天총장님께도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33만 동문들과 함께 우리 동창회를

명실상부한 모교 발전의 견인차가 되고 후원자가 되도록 건실하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창회 활성화를 통해 33만 서울대인 모두가 단결해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參與와 協力, 그리고 榮光이라는 동창회 운영의 기본 방향을 살려, 서울대인 모두가 뜨거운 가슴의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임하시는 林光洙회장님께서 혼신을 다해 모교의 정통과 정체성을 바로 확립하기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대 120년사’ 편찬사업과 역사기념관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식견 높은 여러 동문들 그리고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기원하는 교직원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기꺼이 채워 주시리라 굳게 믿고 동창회장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관악대상 수상자와 함께. 孫一根상임부회장, 林光洙회장, 玄澤煥(영광부문) 동문 부부, 權彞赫(참여부문) 동문, 李基俊(협력부문) 동문 부부, 吳然天총장

정기총회서 제16회 관악대상 시상

“모교 120년사·역사기념관 차질 없이 진행할 것”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3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각계 동문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6회 정기총회 겸 제16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25대 회장에 徐廷和(법학51-55) 부회장을 선출했으며, 冠岳大賞 수상자로 참여부문에 모교 의학과 權彞赫(의학41-47) 명예교수, 협력부문에 모교 화학생물공학부 李基俊(화학공학57-61) 명예교수, 영광부문에 모교 화학생물공학부 玄澤煥(화학83-87)교수를 선정·시상했다. (공적 및 수상소감 4면 참조)

KBS 鄭多恩(언론정보03-08)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林光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02년 총동창회장에 취임하면서 서울대인 모두가 단결해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학사업의 확대 및 모교 발전을 위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물론 모든 서울대 동문들의 요람이 될 수 있는 동창회관 신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여러분과 약속했다”며 “그동안 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저를 적극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임원과 동문여러분께 깊은 감사



동창회 2013년 결산을 심의·의결하는 모습

를 드리며 오늘 저는 후진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회장직을 사임키로 했다”며 용퇴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신임 회장은 1천억원대의 장학회관의 관리운영과 2백억원 규모의 예금을 보유한 우리 동창회를 성실히 관리하고, 동문 간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제가 착수해 놓은 ‘서울대 120년사’ 편찬과 역사기념관 건립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모교 吳然天총장은 축사에서 “동문 여러분들 각자의 헌신과 자기 실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서울대가 있고 대한민

국의 미래가 있다고 믿는다”며 “오늘의 관악대상 시상식은 이를 확인하는 소중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정기총회가 총동창회의 새로운 중흥의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특히 노·장·청 간의 일

체감, 대학과 동창회 간의 한결 더 견고한 일체감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대학과 시민 사회의 가교 역할을 우리 총동창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孫一根상임부회장은 수상자 선정 경과보고에서 “관악대상은 모교 발전 및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도 크게 공헌해 서울대인의 명예를 드높였거나 비동문일지라도 모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 또는 단체에게 시상하는 동창회의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서 1999년 제정된 이래 어느덧 16회째를 맞이하게 됐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전통이 쌓이고 위

상이 높아지는 것 같아 실로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이란 무엇 편향된 몇 사람의 감정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공정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삼봉집’의 말을 인용해 “총 13명의 후보자 모두 대상을 수상할만한 훌륭한 동문들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지만, 관악대상은 다른 상과의 차별화를 위해 받고 싶은 상보다 주고 싶은 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마음 속에 되새기며 공정하고 심도 있는 난산토론 끝에 영광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2부에서는 본회 2013년도 결산보고와 朴英俊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그동안의 전통에 따라 상임이사회에서 신임 회장에 추대된 徐廷和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한 부회장단 인선은 신임 회장에 위임하기로 의결했으며, 전임 林光洙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徐회장은 인사말에서 “林光洙회장님과 비교해서 발자취에도 갈 수 없을 정도로 미려한 제가 이러한 중책을 맡게 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저도 여러 동문들의 의견처럼 林회장님께서 2년을 더 하셔서 모교 120년사 편찬사업과 역사기념관 건립까지는 완성해주시길 바랐지만, 제가 상임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일단 이 자리에 선 이상은 어떠한 과제도 풀어나갈 것”이라며 “회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서울대인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는 데 그 성패가 달려있다”며 동문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취임사 요지 참조)

(4면에 계속)

冠岳大賞 수상자 공적 및 수상소감

참여부문 모교 의학과 權彝赫 명예교수

▲공적 : 1941년 의과대학 의학
과에 입학해 1947년 졸업했으며 모
교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학위와 예
방의학 박사학위, 미국 미네소타대
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56년 모교 의과대학 교수로
부임해 40여 년간 재직하면서 의
과대학장, 보건대학원장, 병원장,
제15대 총장 등을 역임하는 등 후
학양성뿐 아니라 대학 발전을 위
해 헌신했다.

또 문교부 장관, 보건사회부 장
관, 환경처 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교육과 의료 발전에 크
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
민훈장 동백장(1970년), 청조근
정훈장(1983년), 국민훈장 무궁
화장(1988년), 서울대 의과대학

동창회 제1회 함춘대상(2000년),
제16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상
(2006년) 등을 수상했다.

현재 본회 고문으로 활동하며
동창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수상소감 : 權동문은 “먼저 이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林光洙회장
님과 관악대상 孫一根운영위원장
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 여러분께
마음속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
린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세익스피어의 희곡 ‘리어
왕’의 대사 ‘우리들은 이 세상에
나올 때 울고 나왔다’에 자국을 받
아 제 인생의 슬로건을 ‘세상에 나
올 때에 울고 나왔으니 떠날 때는
웃고 떠나자’로 만들었다”며 “현
실성이 크지는 않지만 나름 훌륭



한 인생의 슬로건이라 생각한다”
고 말했다.

또 “제가 작년이 望百이었는데
아마도 관악대상을 수상하신 분
가운데서 90세를 넘어 그 영광을
맛보신 분은 제가 처음일 것”이라
며 “만일의 하나 기적이 생겨 제
가 백 세까지 살게 된다면 신임 徐
廷和회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상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해 많은
동문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협력부문 모교 화학생물공학부 李基俊 명예교수

▲공적 : 1957년 공과대학 화학
공학과에 입학해 1961년 졸업했으
며 1964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1971년 미국 워싱턴대에서
박사학위, 2000년 일본 홋카이도
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1971년 모교 공과대학 교수로
부임해 30여 년간 교수로 활동하
며 후학양성에 힘썼으며 한국공학
기술학회, 한국공학한림원 회
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한국
과학기술총연합회장 등 각종 단체
에서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공
학분야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현재 본회가 지원하는 장학연구
지원사업의 공동위원장을 맡아 1
차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
으며, 향후 사업도 성공적인 완수

를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상소감 : 李동문은 “여러 해
전 총장에 취임하면서 욕을 먹지
않는 총장보다는 업적을 남기는
총장이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세계적인 연구 대학으로 가기 위
한 연구를 독려하고, 이공계 학술
논문 SCI 등재 순위를 34위까지
끌어올리는 쾌거를 이룩한 바 있
다”고 말했다.

이어 “모교는 총동창회의 지원
으로 2년 전부터 강의 동영상 서
비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으
며 금년 중에는 30여 개의 동영상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 무상으로
공개해 학생들은 물론 일반 시민
에게까지 제공한다”며 “이는 학문
발전뿐만 아니라 시민을 위한 수



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에서 무엇보다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존경하는 權彝赫 前총
장님과 자랑스러운 후배 玄澤煥교
수님과 함께 관악대상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 자랑스러운 우리
동창회의 주역 여러분께, 그리고
그동안 많은 업적을 일궈 주신 林
光洙회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
을 드린다”고 말했다.

영광부문 모교 화학생물공학부 玄澤煥 교수

▲공적 : 1983년 모교 자연과학
대학 화학과에 입학해 1987년 졸
업했으며 1989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1996년 미국 일리노이
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부터 모교 공과대학 화학
생물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모
교에서 수행한 순수 국내 연구로
나노소재분야에 2백1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다.

나노입자를 이용한 MRI 조영제
등 의료분야, 2차전지 등의 에너
지 분야에 응용 가능성을 제시하
는 논문들을 세계적 저널에 발표
하는 등 그 능력을 인정받아 제5
회 과학기술부 젊은과학자상(2002
년), 한국과학재단 이달의 과학기
술자상(2002년), 포스코 청암과

학상(2008년) 등을 수상했다.

또 2011년 ‘세계화학의 해’를 기
념해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
SCO)와 국제순수응용화학연맹
(IUPAC)이 선정한 ‘세계 100대
화학자’에 선정됐다.

▲수상소감 : 玄동문은 “우선 저
를 가르쳐주신 화학과 여러 은사
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17
년 전 자연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공과대학에 교수로 뽑아주신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님들과 공과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17년 동안 열심히 연구
를 해준 제자들, 지금은 전국에
계신 부모님과 저희 가족 뒷바라



지를 위해 미국에서 함께 고생하
신 장모님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이 관악대상은 여
러 우리 동문들께서 제가 더욱 열
심히 하려는 큰 격려로 알고 최선을
을 다해 연구에 매진하겠다”며
“특히 우리 모교 후배들 중에서
저보다 더 뛰어난 과학자가 나올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본회 상임이사회·관악회 이사회

장학사업 등 올해 예산 77억원 편성

본회는 지난 3월 21일 서울 소
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본
회 회장단, 재단법인 관악회 임
원, 각 단과대학(원)·특별과장 및
지방지부 동창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8차 상임이사회 및 제
118차 관악회 이사회를 열고 동창
회 및 관악회의 예·결산안을 심
의·의결했다. <동창회·관악회 결
산 6~7면 하단 참조>

지난해 동창회는 1만2천5백여
명의 동문이 보내온 회비 10억3천
7백만원을 포함해 총 18억9백만
원의 수입을 거뒀으며, 회보 발간
및 친목 사업 등으로 17억8천9백
만원을 지출해 총 1천9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 2013년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쳤다. 올해는 20억7
천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관악회는 장학발달 임대수입 52
억원을 비롯해 새로 유입된 장학
기금 2억7천2백만원 등 총 59억7

천3백만원의 수입을 거뒀으며, 모
교 지원과 장학사업 등으로 51억4
천7백만원을 지출했다. 올해 예산
은 56억2천여 만원으로 잡았다.

2013년 말(현재) 동창회는 관
악회 기금을 합해 총 2백4억여 원
의 예치금(금융자산 부문)을 보유
하고 있다.

이날 회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추천된 7천4백여 명을 제25대 이
사로 선임했으며, 동창회 회칙 제
5조 2항에 의거해 본회가 정한 요
건을 충족한 생활과학대학 ‘식품
영양산업CEO과정(FNP)’과 ‘웰에
이징·시니어 산업 최고위 과정
(AWASB)’ 수료자를 준회원으로
승인했다.

한편 본회 제25대 회장에 徐廷
和(법학51-55)부회장, 신임 감
사에 李相赫(행정54-58)부회장을
추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南>



모교 중창단이 축하를 불러 박수를 받았다.

총회서 1천여명 화합 다져

<3면에 이어>

축하공연에서는 모교 재학생들
로 구성된 혼성 중창단이 ‘내 마음
의 강물’, ‘신 아리랑’, ‘희망의 나
라로’에 이어 앙코르곡으로 레하르
의 오페라 ‘미소의 나라’ 중 ‘그
대는 나의 모든 것’을 불러 참석자
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만찬에 앞서 본회 姜信浩고문은
건배사를 통해 “오늘 수상의 영광
을 안은 세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
리며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으
시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한
후 “오늘 林光洙회장이 후배를 위
해 물러난다는 뜻을 전했는데 그
동안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신임
徐廷和회장 역시 모든 일을 맡겨
도 잘 하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
했다.

이어 “동문 모두 협조해서 우리
모교가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건배사를 마치겠다”며 ‘위해서!’
를 세 번 선했다.

또 李吉女부회장은 “그동안 동
창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林光
洙회장님께 뜨거운 박수와 새로
선임된 徐廷和회장님께 격려의 박
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예로운
수상을 하신 세 분께 축하의 말씀
을 드린다”며 “동창회와 모교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위해서!’를 외치겠다”고 말
했다. 李吉女부회장의 선창에 따
라 ‘위해서!’를 힘차게 외친 동문
들은 서로의 잔을 부딪치며 화기
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본회에서
준비한 고급 도자기 찬합 세트와
모교 발전기금에서 협찬한 액정을
리너와 돋보기를 받았다. <香>

소치올림픽 전문기

辛 鉉 雄(지리64-68)웅진재단 이사장·본회 부회장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흑해의 휴양도시 소치와 해발 2천5백~3천5백m 높이의 코카서스산맥 자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이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러시아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 푸시킨,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등 대문호, 차이콥스키, 쇼스타코비치 등 작곡가, 사갈, 칸딘스키 등 미술가, 마린스키와 볼쇼이 발레단을 가진 문화대국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뉴 러시아, 위대한 러시아, 열린 러시아의 재탄생을 만방에 알렸다. 강대한 제정 러시아를 건설했던 피터대제 이후 4백년 만에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인의 꿈이 응축된 야심찬 동계올림픽이었다.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러시아에 안겨준 빅토르 안의 영웅 탄생도 지켜봤다. 뛰어난 인재를 품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자성하면서 그의 선전을 응원하는 한국인의 성숙한 모습도 지켜볼 수 있었다. 불굴의 의지를 갖고 금메달보다 더 값진 은메달을 획득한 빙상의 여왕 金妍兒선수를 위해



정부가 ‘김연아 빙상경기장’을 짓겠다는 흐뭇한 발표에

인파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동메달 2개로 종합순위 13위장 이하 선수, 코치 모두에게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우리 종합순위 17위에 그친 것에

이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정성과 힘을 모아야 할 때에 전 국민이 합심해 유치한 업, 국민의 관심과 열정이 별정스럽다. 손에 손잡고 88이루고 ‘대~한민국’을 외치

켰듯이 이제라도 온 국민의 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횃불을 도로, 철도, 경기장 등에 투자 못지않게 기업의 올림픽

데, 아직도 국내 대기업들의 해 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라 살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적야 한다. 일본은 평창올림픽 동경하계올림픽을 위해 도요들이 서로 다투어 스폰서기업

대비된다.

동 대회의 성공을 위해 겨급하다. 정부와 기업, 체육

집중지원과 함께 외국·동포

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하되, 嬌角殺牛의 틀을 범하

진 우리의 스포츠 외교망과

체육계의 대책도 시급하다.

국내외 최고의 연출가와 예

문화와 역사를 탁월한 상상력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준비해야 한다. 한류, 한식, 설경, 의료, 쇼

핑을 평창올림픽과 하나로 묶은 관광 스포츠상품도 개발해 중국, 일

본, 동남아시아와 아랍권의 관광객 수만 명을 유치해야 할 것이다.

2002 솔트레이크동계올림픽 이후 2014 소치올림픽까지 눈이 내리

지 않은 4개 동계올림픽으로 겨울스포츠 애호가들의 실망이 컸는데,

이번 소치올림픽 기간 중에 강원도에 폭설이 내려 4년 후 함박눈이

내리는 평창올림픽의 눈꽃 축제를 상상해도 될 듯해 가슴이 설렌다.

2018년 2월 9~25일 열리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

부터 뛰어든다. 스포츠는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주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다. 朴槿惠정부는

국민의 마음과 힘을 모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시켜 한국을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 有終의

美를 거둘 수 있는 千載一遇의 기회다.

문화 선진국의 꿈 : 평창올림픽을 생각한 다

정부가 ‘김연아 빙상경기장’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의 쾌거를 이룬 우리의 선수단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겨울의 수십 배에 이르는 일본이

비하면 대단한 성적이다.픽의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

이다. 그런데 세 번 도전 끝

평창올림픽에 대한 정부와 기

썬 식은 것이 아닌가 싶어 각

서울올림픽에서 동서화합을

면서 2002 월드컵을 성공시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아 평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시설

스폰서 마케팅 참여가 중요한

참여가 미진해 IOC조차 당혹

도 대회 유치 때의 초심을 되

극적인 마케팅 참여를 서둘러

보다 2년 후에 열리는 2020

타, 일본항공 등 여러 대기업

으로 참여하고 있어 우리와

올스포츠의 경기력 향상이 시

회가 합심해 국내 선수들의

선수들의 초청이민도 적극 추

스포츠계의 개혁을 적극 추진

지 양기를 기대한다. 취약해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정부와

술가를 초빙해 우리의 독특한

과 연출력으로 세계에 알릴



장학연구지원사업 추진 총괄위원회

‘SNUON’ 다운로드 7만여 건 기록

본회는 지난 3월 20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에듀아르

룸에서 장학연구지원사업 추진 총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공동위원장인 모교 李基俊

前총장과 任廷基기획부총장을 비롯해 전주대 高 健 前총장, 모교 평의원회 鄭根植의장, 李在影학생

처장, 朴枝香중앙도서관장, 林哲一교육부처장이 참석했으며 본회

辛鉉雄·孔大植부회장이 자리를 함

께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林哲一교육부

처장의 보고를 통해 2차년도 사업

인 2013년도 교수 강의 동영상 강

좌 개발 현황과 열린강좌 시스템

등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올해

진행될 3차년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林哲一교육부처장은 “2차년도 사업으로 경제학부 柳根寬교수의 ‘경제통계학’ 등 9개 강좌가 선정

돼 촬영을 마무리했으며, 4월 초 업로드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에 촬영해 9월부터 모교 열린강좌 웹사이트

(http://snuon.snu.ac.kr)를 통해 공개 중인 1차년도 동영상 강좌는 현재까지 다수의 학생이 수

강했으며, 모바일 앱 ‘SNUON’의 누적 다운로드 횟수는 7개월 동

안 7만여 건을 기록해 모교 동영상 강좌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을

입증했다.

현재 edX에서 운영하는 모교 동영상 강좌(SNUx)는 물리전문

학부 崔善浩교수의 ‘물리의 기본1

—역학과 파동을 중심으로’(Introductory Physics—Part 1: Mechanics and Waves), 정치외교학부 趙秉濬교수의 ‘한반도와 국제정치’(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Korean Peninsula, Part 1) 기계항공공학부 朴鍾寓교수의 ‘로봇역학 계획 및 제어’(Robot Mechanics and Control, Part I) 등 3개 강좌이다. 이 중 朴鍾寓교수의 강의는 단기간에 전 세계에서 7천 건 이상의 수강신청을 기록하기도 했다.

모교는 지난해 하반기 동안 촬영·편집한 동영상 강좌를 지난 3월 25일 ‘열린강좌II’로 공개 중이며, 4월 말경에 완료보고회를 열고 2차년도 사업의 최종 성과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李基俊공동위원장은 “고품질의 강의를 되도록 많이 개발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사업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학연구지원사업 중 교육혁신프로그램의 경우 2차년도 사업이 끝나는 시점인 오는 10월 말에 운영을 종료하고 동영상 강좌 개발에 예산을 집중시켜 3차년도에는 기존 9개 강좌보다 더 많은 40여 개의 강좌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강좌 선정에 있어 추천과 공모 방식을 병행하는 등 양질의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秀〉

총회서 함춘대상 시상
의대동창회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眩)는 지난 3월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4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제15회 함춘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함춘대상 수상자로 학술연구부문에 한국응원연구원 李符永(의학52-59)원장, 의료봉사부문에 한국소아감염병학회 孫權贊(의학52-58)명예회장, 정원종합복지원 張敦植(의학56-62)이사



朴容眩회장, 李符永수상자 부부, 張敦植수상자 부부, 孫權贊수상자 부부

장을 선정해 상패와 순금메달을 수여했다.

지난해 동창회는 교보생명 愼昌幸(의학72-78)회장 5천만원, 17회 동기회 1천만원 등의 기금을

비롯해 회비 1억5천4백만원 등 총 11억8천5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올해 장학금 지원 및 친목사업을 위해 12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새 회장에 李揆澤동문
사대동창회

사범대학동창회(회장 卞柱仙)는 지난 3월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37대 회장에 한국교직원공제회 李揆澤(교육61-68)이사장을 선출했다.

이어 제6회 청관대상 시상식에서 사도상 부문에 金榮義(사회교육47-51)前무학여교 교장, 공로상 부문에 모교 지리교육과 金鍾旭(지리교육71-75)교수를 선정해 상패와 순금메달을 수여했다.



金鍾旭·卞柱仙·金榮義동문

신임 李揆澤회장은 “국회의원 4선을 하며 갖고 있는 장점은 별로 없지만 임무를 맡았을 때 누구보다 강한 열정으로 일해 왔다”며 “그동안 꾸준히 참여했던 사대 언

론인·공직자 모임을 기반으로 동창회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배포된 총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친목수련대회, 장학금, 송년회 등의 사업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건물을 매입하기로 했다. 동창회는 회관건립 기금 23억4천여 만원을 포함 33억7천여 만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南〉

장학금 1천2백만원 전달
수의대동창회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文漢)는 지난 3월 7일 관악캠퍼스 수의과대학 스코필드홀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의대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최선규 양과 박준형 군에게 7백50만원, 李角模장학기금으로 강익재 군에게 2백만원, 82동기회 장학기금으로 최규형 군에게 2백50만원 등 총 4명에게 1천2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동창회는 지금까지 총 1백5명의 장학생에게 2억8천1백만원을 지원했다.

경북 청도서 첫 골프
대구·경북지부동창회

대구·경북지부동창회(회장 李墉雨) 산하 골프모임 관악회는 지난 3월 15일 경북 청도군 오션힐스청도GC에서 올해 첫 정기 골프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李墉雨회장을 비롯해 鄭鏞哲(산업공학69-73)·李

錫圭(전기공학75-79)동문 등 12명의 동문이 참가해 조별로 기량을 겨뤘다.

오션힐스청도GC 부회장인 李相善(법학77-81)동문이 이날 대회의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으며, 지난해 12월 관악회 신입 회장으로 선임된 李載亨(기계설계76-80)동문이 뒤풀이 식사 비용을 지원해 모임의 풍성함을 더했다.

모교 신입생 격려
김포지부동창회

김포지부동창회(회장 金鍾逸)는 지난 3월 24일 김포 시내 한 정식당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가졌다.

이날 金鍾逸회장과 임원진 등 13명의 동문이 모인 가운데 모교 신입생 3명을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입학 선물로 손목시계를 전달했다.

金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학에서 전공 공부뿐만 아니라 교양 강좌 또한 열심히 들으며 더불어 사는 이치를 배우고, 보람찬 학생 생활을 통해 훗날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申秀貞회장(右)이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홈페이지 적극 활용해 주세요”

음대동창회

음악대학동창회(회장 申秀貞)는 지난 3월 10일 서울 방배동 중식당 함지박에서 7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모교 기악과 ‘S.with 색소폰퀸텟’팀의 연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정기총회, 신입회원 환영회, 기금 전달 및 장학금 수여식 등의 1부와 공연, 만찬, 경품추첨 등의 2부 행사로 나눠 진행됐다.

총회에서 최근 모교 교수 채용과 학력 위조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성악과 문제와 관련해 동창회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申秀貞회장은 “음대는 다른 학

문분야와 달리 박사학위가 아닌 해외 음악기관의 디플로마를 받은 연주인 가운데 교수로 채용된 경우가 많고 나 역시 그랬다”며 “이러한 특수한 상황 등을 비롯해 성악과의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창회 운영과 관련 적극적인 회비 납부와 홈페이지(www.snumusic.org)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진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성악, 기악, 국악 등 각 학과별 전공 학생 5명에게 각각 1백만원을 전달했다.

특pecially 이날 졸업 40주년을 맞은 70학번 동기회(대표 李慧仙)에서 8백만원을 모아 동창회에 기부했다.

이날 모임을 위해 모교 음대 金泳律학장이 와인을 협찬했으며, 동창회에서 기념품으로 수건 세트를 선물했다.

입학 50주년 행사 준비
동송클럽

문리대 65학번 모임인 동송클럽(회장 李充陽)은 지난 3월 14일 서울 삼성동 현죽빌딩에서 국방대 학원 姜根鐸(외교65-72)교수를 연사로 초빙해 제29차 동송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 이어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李充陽회장이 연임됐으며, 상반기 중 2015년 입학 5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동송클럽은 분기별 포럼을 비롯해 송석회(바둑), 세토회(등산), 씨네클럽(영화) 등의 동호회 모임과 봄·가을 국내외 여행 등을 통해 친목을 다지며 올해 봄 여행은 4월 18~19일 경주·경산 일대로 다녀오기로 했다.

徐東喜회장 추대
훈올회

모교 미대 여성동문들로 구성된 훈올회(회장 金昇姬)는 지난 3월 26일 서울



인사동 한식당 지리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입 회장에 건국대 徐東喜(응용미술66-70)교수(사진)를 선출했다.

신임 徐東喜회장은 “그동안 정기 전시회가 회원들의 작품교류에 초점을 맞춰져서 판매에는 소홀했는데 올해부터는 홍보담당 임원을 두고 판매도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회원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춘계 등반모임 가져
화학생물공학부동창회

화학생물공학부동창회(회장 金榮幸)는 지난 3월 15일 관악산에서 춘계 등반모임을 가졌다.

동창회는 오는 4월 29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朴明潤특지장학금 전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朴明潤(보대원74-76 관악회 이사)이사장은 지난 3월 25일 모교 관악캠퍼스 보건대학원 회의실에서 ‘朴明潤·李幸子특지장학회’ 연구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차동문은 3명의 대학원생에게 2백만원을 전달했다. (南)

• 너무 똑똑한 아들

한 가족이 오랜만에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부담스러운 가격임에도 스테이크를 시켰다. 푸짐하게 먹었다고 생각했지만 꽤 많이 남은 음식들을 그냥 두고 가기가 아까웠다. 아버지는 음식을 싸 가기가 민망한 생각이 들어 웨이터에게 둘러대기 시작했다. “여보게 웨이터, 남은 음식은 싸주게. 집에 개가 있어서...” 그때 너무 똑똑한 아들이 말했다.

“아빠, 집에 갈 때 개 사갈 거야?”

• 체인점

지하도에서 거지가 양손에 모자를 들고 구걸을 하고 있었다. 지나가던 행인이 모자에 동전을 넣으며 거지에게 물었다. 행인 : 왜 모자를 2개나 들고 있는 거죠? 거지 : 요즘 장사가 잘돼서 체인점을 하나 더 냈습니다. <독자제보 환영>

2013년도

동 창 회 결 산 공 고

재 무 상 태 표

201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산	4,051,164,682	부채	53,774,484
I.유동자산	4,046,282,062	I.유동부채	-
(1)당좌자산	4,046,282,062	1.미지급금	41,373,508
1.현금	1,760,480	2.예수금	5,806,647
2.보통예금	3,909,245,499	II.비유동부채	6,594,329
3.미수수익	46,209,933	1.퇴직급여충당금	6,594,329
4.미수금	49,000,000		
5.선납세금	18,995,650	자본	3,997,390,198
6.선급금	21,070,500	I.자본금	4,161,271
(2)재고자산		1.기본금	4,161,271
II.비유동자산	4,882,620	II.이익잉여금	3,993,228,927
(1)투자자산	305,750	1.미처분이익잉여금	3,993,228,927
1.지급보증금	305,750		
(2)유형자산	4,576,870		
1.비품	66,131,600		
감가상각누계액	61,554,730		
합 계	4,051,164,682	합 계	4,051,164,682

운 영 성 과 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I.운영수익	1,809,579,492	11.회의비	45,159,785
1.광고수입	443,426,057	12.지급수수료	6,921,337
2.수입이자	119,413,477	13.잡비	3,966,830
3.찬조금수입	195,211,500	14.전산화비용	11,642,500
4.회원회비	1,037,327,458	15.친목사업비	250,286,921
5.잡수입	14,201,000	16.지원사업비	35,187,810
II.운영비용	1,789,723,115	17.조직강화비	431,610,113
1.간행물비	831,516,104	18.사무비	10,647,306
2.직원급여	49,626,600	19.예치금전출	45,582,500
3.상여금	24,427,160	20.잡손실	116,086
4.제수당	11,375,040		
5.퇴직급여	6,300,508		
6.복리후생비	7,424,440		
7.여비교통비	1,701,420		
8.세금과공과금	8,184,480		
9.감가상각비	2,931,515		
10.보험료	5,114,660	III.당기순운영차익	19,856,377

위와 같이 공고함
2014. 3.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앞줄 鄭昊均·李忠雄·李梓旭·李秉基·金貞植·李熙國동문, 李光馥·李竝浩·李在弘교수

장학생 28명에 8천3백만원

전자동문회

전자동문회(회장 李熙國)는 지난 3월 7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 회관에서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전기정보공학부 재학생 28명에게 8천3백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 李熙國회장, 전자 전기정보장학재단 李秉基이사장,

대덕전자 金貞植회장, 노키아 TMC 李梓旭명예회장, 삼성SDI 鄭昊均고문, 모교 전기정보공학부 李光馥학부장, 李忠雄명예교수, 李在弘·鄭德均교수 등이 참석해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동문회는 1991년 설립한 전자전기정보장학재단을 통해 그동안 8백30여 명의 학생에게 24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金貞植·李

梓旭·李梓旭동문 등 52명이 31억 원의 기금을 출연했으며, 장학생 1백명이 졸업 후 1억9천여 만원을 기부하는 등 장학사업에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李光馥학부장은 “학부 단위로 장학재단을 갖고 있는 곳은 국내에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가 유일한 것으로 안다”며 “동문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최근 QS 세계대학평가 학과별 순위에서 우리 학부가 19위에 오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모바일 원우수첩 제작 GLP동창회

글로벌리더십과정동창회(회장 趙鏞根)는 지난 3월 25일 서울 논현동 빌라드베일리에서 본회 金宗鎬부회장을 비롯해 辛秉烈 전임 회장, 趙鏞根회장 등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천안함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趙鏞根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천안함 4주기를 즈음해 여러 곳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며 “우리 GLP 동문 중 한 사람이 천안함재단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만찬에 이어 진행된 2부에서 2013년 결산 및 감사보고를 가졌

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趙鏞根회장과 金鶴洙감사·이종묵 사무총장을 재선임했다. 동창회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골프대회(6월), 등산대회(10월), 송년회(12월)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제작한 ‘모바일 원우수첩’(www.snuglp.com)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文正旭회장 뽑아 AFB동창회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梁好錫)는 최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 셀레나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8대 동창회장에 대원에프앤씨 文正旭(9기)대표를 선출했다. 한편 지난 3월 8일 서울 관악산에서 70여 명의 동문이 참석

한 가운데 올 한 해의 무사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개최했다. 동창회는 올해 7월 등반대회, 10월 동문 골프대회, 12월 송년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鄭喆燮회장 선출 AMPP동창회

해양정책 최고과정동창회(회장 孫一洙)는 최근 서울 도곡동 군인공제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법무법인 푸른 鄭喆燮(3기)대표변호사를 선출했다. 이날 모임에는 모교 지구환경과학부 朴龍安명예교수, 南正明·鄭鍾鈺 전임 회장을 비롯해 1백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해 鄭喆燮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邊〉

동문 대상 ‘연극아카데미’ 개설

연극동문회

연극동문회(회장 李順載)는 지난 3월 7일 서울 충정로 삼창빌딩 9층 동문회 사무실에서 ‘관악연극아카데미’ 1기 수강생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1기 프로그램에 등록한 朴容逸(법학66-73)·申彊均(식품공학69-73)동문 등 18명의 수강생과 강사를 맡은 아리아카데미 朴贊玼(독문64-72)대표강사, 서울시립뮤지컬단 박경일(성악84-92)음악감독,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김선애(화학89-93)교수 등이다.

한편 연극동문회는 본회에서 추진 중인 모교 역사 자료 수집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대본, 포스터, 팸플릿, 사진 등을 회원들로부터 받아 동문회 명의로 기증할 계획이다.

동문 작품

지상전시회

李秉錫作



환희-바람이 머무는 곳, Oil Mixed Media, 53×41cm, 2013년

〈작가약력〉

- ▲1962년 모교 회화와 졸업
- ▲개인전 11회
- ▲1984년 아세아현대미술제 국제상
- ▲제94회 프랑스 앙데팡당 국제전

- ▲MANIF 한국구상대전·서울국제현대미술제·서울시미술대전 초대전
- ▲대한민국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장, 서울미술대상전 심사위원장, 진주개천미술대상전 심사위원장 역임
- ▲현재 한국미협·서울미협 고문,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 상임고문

2013년도

(재) 관 악 회 결 산 공 고

재 무 상 태 표

201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산	44,953,312,088	부채	3,095,277,313
I. 유동자산	16,933,109,085	I. 유동부채	167,373,690
(1) 당좌자산	16,933,109,085	1.미지급금	54,344,790
1.현금및현금성자산	16,586,600,485	2.예수금	3,657,620
2.미수수익	260,140,041	3.부가세예수금	107,631,280
3.미수금	4,428,504	4.선수금	1,740,000
4.선납세금	81,940,055	II. 비유동부채	2,927,903,623
II. 비유동자산	28,002,203,003	1.퇴직급여충당금	71,002,623
(1) 투자자산	—	2.임대보증금	2,854,981,000
1.장기투자자산	—	3.기타보증금	1,920,000
(2) 유형자산	28,002,203,003	자본	41,858,034,775
1.토지	624,290,410	I. 출연금	33,577,370,410
2.건물	22,848,241,294	II. 이익잉여금	8,280,664,365
감가상각누계액	1,475,615,582	1.미처분이익잉여금	8,280,664,365
3.구축물	4,039,127,510		
감가상각누계액	1,043,441,268		
4.기계장치	5,892,474,484		
감가상각누계액	3,145,850,634		
5.차량운반구	67,895,470		
감가상각누계액	52,804,104		
6.비품	207,184,031		
감가상각누계액	154,388,211		
7.시설장치	630,636,364		
감가상각누계액	435,546,761		
III. 기타비유동자산	18,000,000		
1.임차보증금	18,000,000		
합 계	44,953,312,088	합 계	44,953,312,088

운 영 성 과 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I. 운영수익	5,973,383,692	10.세금과공과금	87,105,907
1.임대수익	3,351,219,085	11.감가상각비	2,139,016,145
2.관리비수익	1,851,937,774	12.보험료	10,884,580
3.이자수익	496,868,558	13.차량유지비	10,070,404
4.장학기금	272,582,500	14.목적사업운영비	215,847,647
5.잡이익	775,775	15.사무용품비	3,555,150
II. 운영비용	7,177,425,226	16.소모품비	7,470,949
1.직원급여	100,484,800	17.지급수수료	34,481,761
2.상여금	49,709,220	18.지급임차료	1,086,335
3.제수당	24,998,240	19.건물관리비	623,668,480
4.퇴직급여	23,532,688	20.장학사업비	1,729,195,500
5.복리후생비	5,737,410	21.기타목적사업비	416,725,000
6.여비교통비	10,651,300	22.장학연구지원사업비	1,189,700,000
7.통신비	5,742,239		
8.수도광열비	150,133,593		
9.전력비	337,627,878	III. 당기순운영차손	1,204,041,534

위와 같이 공고함
2014. 3. .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장 林 光 洙

文國現회장 취임·발전계획 발표

SGS동창회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동창회(회장 文國現)는 지난 3월 28일 모교 관악캠퍼스 환경대학원 GLocal홀에서 회장 이·취임식 및 동창회 발전계획 발표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吳元錫·曹白一 전임 회장을 비롯해 모교 환경대학원 崔莫重원장, 文國現(경대원 77졸·7기)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文國現회장은 취임사에서 “환경대학원동창회장 지리는 권력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사회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미래 리더를 육성하는 데 우리 동창회가 일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崔莫重·文國現·曹白一동문

이어 文國現회장이 曹白一직전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동창회는 ‘기다리는 동창회에서 다가가는 동창회’라는 슬로건을 걸고 동창회 명부 정비, 온라인 카페 생성, 소식지 발간, 기별모임 활성화, 재정 확충, 사무국 시스템 구축 등의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모교 환경대학원 李東洙교수가 ‘기후변화와 화학물질’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쳤다.

朴煥熙회장 선출·감사패 수여

SPARC동창회

과학기술혁신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金鍾顯)는 지난 2월 27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모교 자연대 金明煥학장, 吳鍾南·李岡根교수를 비롯해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새 회장에 아이넷방송 朴煥熙(20기)대표를 선출했으며, 상임수석부회장에 현대하이텍 吳廷基(21기)대표, 감사에 세무법인 삼도 柳賢善(8기)대표, 극동무역 任稅現(19기)대표, 사무총장에 건영산업 朴潤漢(20기)대표를 선임했다.

총회 후 吳鍾南주임교수와 任稅



朴煥熙회장, 任稅現사무총장

現사무총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尹錫九홍보국장을 비롯해 총 9명의 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동창회는 올해 등산대회(4월, 10월), 골프대회(5월, 10월), 세미나(10월), 송년음악회(11월) 등의 친목행사와 5명의 내·외국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총회서 공로패·감사패 전달

HPM동창회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동창회(회장 朴浩永)는 지난 3월 17일 모교 연건캠퍼스 함춘회관에서 朴尙東·白純之 명예회장, 朴浩永 회장, 趙吉雄·김국숙 상임부회장 등 9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朴浩永회장은 인사말에서 “동문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으로 가득한 동창회로 이끌겠다”고 했다.

이날 총회에서 부회장 3명, 자문위원·이사 각각 2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어 김광화치과의원 金光華(9



朴浩永회장, 韓尙樹동문

기)원장 등 7명의 동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동창회 기금으로 5천여 만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한 칠성프라자 韓尙樹(7기)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총회 후 ‘통일은 대박이다’의 저자 중앙대 申昌燾(행정60-64)명예교수가 ‘통일이 왜 대박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邊〉

모교 역사 자료 수집에 동문 1백3명 기증



본회와 모교 기록관이 진행하고 있는 모교 역사기념관 건립 자료 수집에 지난 3월 1~31일 7명의 동문이 추가로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 2월 28일 이전에 기증한 동문 96명(본보 421호 8명, 422호 4명, 423호·424호·425호 6명, 426호 8명, 427호 7명, 428호 8명, 429호 4명, 430호 6명, 431호 3명, 432호 7명 게재)을 통합해 현재까지 총 1백3명의 동문이 소중한 자료를 보내

RULE ▲金在仁(임학58-64)동문: 기념문집, 기념사진 30매 ▲趙在龜(조소60-64)동문: 졸업증서, 교육연수 이수증, 교원자격증 2매, 총동창회 그린스카우트 회장 2매, 학생증, 미대동창회 자문위원증서, 서울대 교모, ROTC 2기 정모〈사진〉 ▲金永廈(경제61-65)동문: 졸업증명서(1965년) ▲李信昊(농공학74-78)동문: 1970년대 학군단 모자·재킷·벨트 등

서울대학교 역사 자료를 찾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회장 서정화)와 서울대(총장 오연천)는 2015년에 맞을 개학 120주년을 계기로 모교의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서울대 120년사’ 편찬과 ‘서울대 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오니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동문과 가족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 대상 : 서울대학교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물

- 1)문서류 : 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류, 수업 관련 강의노트 및 과제물, 자치단체 회의록 등
- 2)시청각물류 : 교내 교정 및 학내 행사 사진·영상자료, 각종 슬라이드, 강의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등
- 3)간행물류 : 팸플릿, 리플릿, 소식지, 요람, 편람, 졸업앨범 등
- 4)박물류 : 교표, 교기, 배지, 교복, 감사패, 현판, 액자, 직인, 기념품, 상장, 임명장, 개인애장품, 성적표 등
- 5)기타 대학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원품, 모사품, 앨범 포함)

2. 수집 기간 : 2014년 12월 31일까지 (마감기일 연기)

3. 수집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문의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전 화 : 02-702-2233 팩스 : 02-703-0755 E-mail : webmaster@snu.ac.kr
주 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416호
담당자 : 임성용 과장 핸드폰 : 010-9238-9759

서울대학교 기록관

전 화 : 02-880-8819 팩스 : 02-884-7149 E-mail : archives@snu.ac.kr
주 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기록관 220동 446호
담당자 : 김봉은 전문위원 핸드폰 : 010-3032-5913

5. 제공자 혜택 : 역사기념관에 제공자 성명을 표시하는 등 혜택 제공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서정화·서울대학교 총장 오연천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약대동창회 李慶秀회장
(코스맥스 회장)

코스맥스 李慶秀(약학66-70)회장이 지난 2월 약학대학동창회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李회장은 제약회사 임원으로 승승장구하던 46세 때 사업에 뛰어들어 코스맥스를 국내 최대 화장품 ODM(제조자개발생산) 업체로 일군 입지전적의 인물이다. 해외 공장 증설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李회장을 지난 3월 24일 경기도 판교 코스맥스 R&I센터에서 만났다.

- 동문들의 기대가 큼니다.

“서울대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첫 직장인 동아제약 입사 때부터 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었고 오리콤에선 선배들이 끌어주셔서 좋은 경험을 했어요.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요. 모교에 늘 빛진 마음이 있었죠. 회장직 제

- 약학을 전공하게 된 동기는.

“가정 형편이 어려웠어요. 대학 4년간 가정교사를 했죠. 약사가 되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컸어요. 졸업 후 다른 길을 가긴 했지만요. 그래도 약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해외 출장 가면 그 나라의 약국을 유심히 관찰해요. 일본, 미국, 프랑스 약국들은 대형화되거나 화장품, 기능성건강식품을 동시에 취급하

“모교 덕분에 성장…빛 갇을 기회”

의를 받았을 때 바쁘더라도 더 나이 들기 전에 현역일 때 하자는 마음에 기쁘게 수락했어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야죠.”

- 계획하는 사업이 있는지.

“전임 회장들께서 회관 마련부터 모교 지원, 다양한 친목 행사 등 동창회 기틀을 확실하게 잡아주셔서 현 상태를 유지·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해 보입니다. 동창회 임원들과 모교 교수들을 곧 만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들어보고 사업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 동기 모임은.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한 두 번 참석이 고작이에요. 회사 성장이 결국 동창회나 모교를 드높이는 일이란 생각으로 업무에 전념하느라 그렇게 됐는데 동기들이 이해해 줘서 고맙죠.”

는 종합 형태의 약국으로 발전했더라고요. 중심상권에서 밀려나는 우리 약국들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황해도 송화 출신인李회장은 모교 졸업 이후 동아제약 마케팅팀, 광고대행사 오리콤을 거쳐 대웅제약 전무를 지낸 후 1992년 코스맥스를 설립했다. 건강기능식품 계열사와 중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법인 직원을 포함해 2천5백여 명의 직원이 일하며 지난해 4천3백여 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프랑스 로레알, 미국 존슨앤존슨, 일본 수에무라 등 해외 브랜드부터 국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을 통해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2020년 내에 화장품 ODM 세계 1위인 이탈리아 인터코스를 따라잡겠다는 목표다. 바둑아마 3단으로 바쁜 와중에도 바둑기사는 꼭 쟁겨 읽는다. (南)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포항지부동창회 具滋文회장
(한동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포항지부동창회는 지난 2월 11일 신임 회장에 한동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具滋文(건축73-80)교수를 선출했다. 具회장은 “한동안 미국에서 살다가 19년 전 귀국해 포항에 살게 됐을 때 이곳에서 만난 모교 동문들이 알게 모르게 애정과 배려를 베풀어 줬다”고 회고하며 “계기만 마련되면 동창회가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밝혔다.

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거액을 들여 큰 사업을 하기보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사랑의 집짓기를 하거나 지역 학교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도 가능하겠지요. 개인적으로 내 지역의 쓰레기를 줍는 것부터 시작하는 ‘커뮤니티 운동’에 대한 아쉬움이 늘 있기에 동창회가 가까운 지역사회는 물론 각자 활약 중이거나 관심을 가진 국외를 무대라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봤으면 합니다.”

- 도시 전문가가 소개하는 포항은.

“포항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R&D센터와 국제적인 수준의 대학교, 글로벌 철강기업 등이 있습니다. 요즘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동빈내항의 오염을 해결하고 형산강과 물길줄 이어주는 포항은

“동문 재능기부로 지역사회 활력”

- 동창회 소개를 해주신다면.

“확인된 회원 수는 5백여 명으로 젊은 동문들을 합하면 훨씬 많아질 겁니다. 인구 53만의 중간 크기 도시임에도 주요 대학과 산업체가 자리하고 지역 고교가 우수한 덕에 모교 동문들이 적지 않은 편이죠. 예산은 운영위원들이 소정의 회비를 각출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주요 행사는.

“작은 달 두 번째 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모이며, 앞으로 봄과 가을에 가족 나들이를 계획 중입니다. 특히 포항 출신 모교 신입생 환영회는 제가 졸업식 때나 불러왔던 교가를 다 함께 부르는 자리인지라 매년 의미가 크게 느껴집니다.”

- 동창회 활성화 방안은.

“보람 있고 큰 부담도 없는 사업을 찾아 구심점을 만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

가 개통됐는데, 인근의 죽도 어시장과 함께 테마 관광지로서 도심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듯합니다. 또 컨테이너 항만인 영일만항의 경우 러시아 자루비노항, 일본 마이즈루항 등과 크루즈·페리 운항도 검토 중이어서 환동해권 네트워크 중심지로서 포항의 역할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具회장은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학위, 서던캘리포니아대에서 도시계획 및 개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로스앤젤레스시 부도시계획관과 주택계획 및 경제분석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 소장 및 지역개발 칼럼니스트로서 환동해권 국가와 개발도상국 등에 관해 활발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秀)

대표이사 김혜정 [82人 독어독문]



당신에게 당신 필요하다
기쁨해 듀오

맨 듀오

한국대표점주번호
15개
-8333

점유율 63.2%, 매출 1위
(주요 4개업종간 2010년 매출액 기준)
성혼커플수 28,762명
(2014년 2월 17일 기준)

*본 그래프는 공동개발사업자가 발표한 매출액 2012.3.29에 들어있는 표 '주요 4개업종간 매출액'의 수치를 그대로 표기한 것입니다.
*성혼커플수는 15개 대표점 15개점 간 15개 성혼커플수(2014.2.14~2014.2.17)

어깨를 주물러드리면, 어머니는
“우리 딸 손맛이 최고네”
소개팅을 시켜주면, 친구는
“내 취향은 니가 제일 잘 안다”
회식장소를 예약하면, 부장님은
“권과장이 고르는 집은 항상 최고야!”
참치캔을 따주면, 고양이는
“냐옹! 나아옹!!”
주어진 모든 역할에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최고'로 인정받는다
마치 효성이 그래왔던 것처럼
나는 효성에서 일한다



(주)효성 산업자재PG
권유리 과장

타이어코드 세계 1위
스판덱스 세계 1위
소형 ATM 세계 1위



중공업



산업자재



석유



화학



건설



무역



정보통신



화제의 동문

대한변리사회 高永會회장

대한기술사회 초대 회장을 지낸 성장특허 법률사무소 高永會(건축77-81)대표가 지난 2월 대한변리사회 제37대 회장에 선출됐다. 양대 이공계 전문가 단체 수장에 모두 오른 셈이다.

지난 3월 19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리사회에서 만난 高회장은 ‘이공계 전도사’를 자임하며 “과학기술자가 푸대접받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대한기술사회를 창립했고 이번에 변리사 회장에 출마해 두 분의 후보와 경합 끝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 회원 3천6백여 명 가운데 90% 이상이 이공계 출신일 정도로 변리사는 이 분야 전문자격으로 통한다. 최근 들어 음악, 디자인 등 저작권 관련 업무가 늘기는 했지만 산업기술과 관련된 특허 업무가 주요 분야이기 때문이다.

소송대리권 문제해결이 과제

애플과 삼성의 특허분쟁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지적재산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뤄지며 변리사에 대한 관심도 높다. 주요 대기업에서 변리사를 앓다뒀고 고용하고 대형 로펌에서도 변리사를 대거 채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高동문은 변리사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 근거로 변



대한기술사회장 지낸 ‘특허 전문가’ “이공계인 우대가 창조경제 출발점”

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획득 문제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문제를 들었다.

“1999년 피뢰기 특허 침해를 둘러싼 민사 소송에서 피고측 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아닌 제가 출석하자 재판부에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특허 사건에 대해서는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변리사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왜 대리권이 없느냐고 항변했지만 안 통하더라고요. 지난해 특허청이 변호사 자동자격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해결의 단초가 마련됐지만 소송대리권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죠.”

高회장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

는 현실점에서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들이 당당하게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일할 수 있으면 결국 과학기술에 대한 대우로까지 이어져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1960~80년대 입사한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 덕분에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 분위기로는 절대 아니죠. 이공계 장학금, 병역혜택을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아들이 의대에 지원해 떨어져 재수를 합니다. 수학을 잘해 공

대에 가기를 바랐지만 아내가 완강히 반대를 하며 의대를 보내려고 해요. 근본적으로 이공계 출신들을 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죠. 현 정부에서 말하는 ‘창조경제’는 공직에 이공계 자리를 늘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이공계 기 살리기’를 위해 살아온 흔적이 뚜렷하다. 우선 그 자신이 확실한 공학인으로 발판을 다져왔다. 건축학과 졸업 후 동부건설, 현대알루미늄공업, 중앙건설에서 현장 경험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회사를 나와 1995년 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에

는 모교 대학원에서 건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외환위기 이후 우선순위로 실직하는 연구원들과 공대에 입학해 의대로 전과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공학도’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高동문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첫 행동으로 2002년 대한기술사회를 창립해 기술사들의 위상 제고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수도권 대표, ‘행정개혁시민연합’(행개련) 과학기술 공동위원장 등의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정책적으로 이공계 출신 우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에 앞장섰다. 지금은 세종과학포럼 상임대표를 맡으면서 ‘자유칼럼그룹’, ‘서울경제’를 비롯해 블로그(cafe.daum.net/hollioo) 등을 통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자유칼럼그룹’에 기고 활동도

이러한 열정이,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한다는 ‘58년 개띠’의 특성이나는 물음에 “원래 내성적인 성격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했는데 용기를 내서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이공계에 대한 애정이 있다 보니 천성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1960~70년대처럼 공대, 자연대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진학해야 합니다. 동창회보에서도 가급적이 분야 출신 동문들을 많이 등장시켜 이공계 인기가 부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南〉

국립중앙치매센터 金己雄센터장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나라’. 지난 2012년 치매관리법 시행에 따라 국가 치매관리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 개소한 국립중앙치매센터의 목표다. 분당 모교 병원 정신의학과 金己雄(의학83-89)교수가 초대 센터장을 맡아 이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치매관리법에 의해 국가는 5년마다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센터는 이러한 계획 및 관련 서비스와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은 민간 차원에서 천천히 대비할 틈이 없기에 국립 센터의 역할이 크다. 지난 3월 25일 경기도 성남시 국립중앙치매센터에서 만난 金센터장은 “마음 같아선 더 빠르면 좋겠지만, 한국형 치매 사회안전망을 확립하는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과음 찾으면 치매 위험 높아

“현재 진단 인프라가 많이 정착돼 전국의 치매지원센터나 보건소에서 만 60세 이상 노인이면 무료로 치매 1차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치매에 걸린 분들을 위한 서비스도 발 빠르게 강화되는데요, 치매 약제비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약값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환자를 돌보는 면에서도 올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치매특별등급이



‘치매 이겨낼 수 있다’ 희망 전파 전국보건소서 무료 치매검진 실시

생겨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센터는 간단한 치매 자가 검진 도구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PC버전 ‘치매체크’를 개발했다. 누구나 다운받아 쓸 수 있지만 특히 독거 노인이나 초고령 노인 등 진단 취약층에게 직접 찾아가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생 파트너를 뽑아 사용법을 가르쳤다.

“2025년에서 2035년 사이에 치매의 사회적 고통이 급격히 커질 겁니다. 환자는 1백만명을 넘고 노동 인구는 급격하게 주는 시기예요. 그때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세대가 지금의 중·고등학생, 대학생입니다. 병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힘들고 피하고 싶기만 할 테니 지금부터 가르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의 치매관리 전략은 과거처럼 좋은 요양 시설을 갖추는 데 치중하기보다 시설에 가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시설에 갈 사람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 환자는 물론 가정에서 돌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金센터장은 “몇 년 전엔 ‘치매 같다’며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 대부분이 치매 진행 중기 단계였는데, 요즘은 70% 정도가 첫 단계인 초경도에 찾아온다”며 “그만큼 초기 증상에 민감해졌고 치료를 통해 좋아질 수 있다는 의지와 믿음이 강해진 걸 느낀다”고 말했다. ‘치매, 희망을 이야기합시다’를 주제로 10년 넘게 펼쳐 온 강연에도

미리부터 관심을 보이는 40~50대 청중이 부쩍 늘었다. 그가 치매 연구를 시작한 1993년 무렵만 해도 미국에서 최초의 치매 치료제가 개발됐지만 부작용이 많아 치료에 어려움이 컸다. 현재는 약으로 진행을 상당히 늦추는 정도까지 진전됐고, 오바마 대통령이 ‘2025년까지 완치법을 찾겠다’고 선언한 미국을 위시해 선진국들이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수년 후 완전히 병의 진행을 멈출 수 있는 좋은 약이 개발되면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관리해 뇌 건강을 잘 유지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제의 동문

金센터장은 얼마전 개통한 24시간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직접 안내했다. 36석 규모의 콜센터에서는 현장 경험 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연중무휴로 치매 관련 상담을 해준다. 때마침 교대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상담사들에게 웃으며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건네던 그는 “본인이 치매인지 궁금하다는 전화부터 보험 서비스에 관한 문의, 간병이 힘들고 어렵다는 보호자의 다급한 호소까지 다양한 전화가 걸려온다”고 말했다. 외우기 쉽도록 번호에 ‘18세의 기억을 99세까지, 99세까지 팔팔(88)하게 산다’는 뜻을 담은 만큼 많은 애용을 부탁했다.

24시간 상담콜센터 운영

그는 “치매는 기억을 떠올리는 게 아닌 새로운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데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바로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는데 옛날 일을 잘 기억한다고 해서 치매가 아니라고 하는 건 위험한 생각”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처럼 치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일도 센터의 몫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치매 전문의로서 동문들에게 애정 어린 당부를 전했다.

“일주일에 세 번 정도 30분 이상 걸으시고, 술을 많이 드시면 확실히 치매 위험이 높으니 꼭 과음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꾸준히 지키셨으면 합니다.” 〈秀〉

바다의 맨 바깥쪽에서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도선사가 지키는 안전한 항만!

바다와 맞닿는 최일선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도선사 -
숙련된 베테랑들이 모여서 만드는 프로페셔널의
세계가 있습니다.



한국도선사협회

한국도선사협회 나 종 팔 회장
(서울법대 ALP 16기)



“패소해도 승복하는 사법제도 만들고 싶다”

동문을 찾아서

사법정책연구원 **崔松和**원장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崔松和**(행정59-63)명 예교수가 지난 3월 10일 출범한 사법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독립적 연구기관으로 사법부의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사법부

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게 된다. 3월 27일 경기도 일산의 호수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연구원(사법연수원 본관) 원장실에 들어서자 **崔원장**이 밝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담 : 權石泉(중앙일보 논설위원)논설위원

— 우선 사법정책연구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사법부가 변화된 환경에 어떻게 적절히 대응할 것인가, 그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결단을 내려서 지난해 8월 법원조직법이 개정됐습니다. 초대 원장의 중책을 맡게 돼 영광스럽습니다만,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지요.

“연구원에 설치된 미래사법, 통합사법, 법교육, 통일사법, 해외사법 등 5개 센터를 중심으로 사법부가 중·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미래의 청사진을 연구하게 됩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을 사법이 나아갈 방향으로 잡고 사법부 내부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4월 4일까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 과제를 공모한 뒤 올해 연구 사업을 확정지를 예정입니다. 동문들께서도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구원 이메일(jpriga100@scourt.go.kr)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이유는.

“연구의 1차 수요자는 사법부 내부이지만 기본 수요자, 최종 수요자는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연구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하고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적용될 수 있게끔 하는 일, 소통의 통로를 보다 넓히는 일이 우리 연구원의 과제입니다.”

— 개원식에서 ‘우리 사회가 전환기적인 변화의 소용돌이를 지나고 있다. 법의 영역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사법은 과거에 발생한 법률적인 분쟁을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기능을 맡아왔지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사법이었는데, 현재 사법은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 세계화와 함께 사회 갈등이 다양화·다차원화·양극화되는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존 사법제도로는 국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분쟁 해결이라는 전통적 역할을 넘어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사법부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이제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법이 과연 사회 통합의 역할까지 맡을 수 있을까요.

“법원 재판 후에 양쪽 당사자가 만족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설사 패소를 했더라도 재판에 승복할 수 있다면, 그 과정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느



‘미래 사법의 청사진’ 그릴 싱크탱크 역할 평화통일 이루는데 동문들이 앞장서야

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사회 통합, 사회 갈등의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 재판에서 진 사람들이 재판제도에 대한 존중심을 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사법제도, 재판제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법제도가 있으니까 내가 법치주의와 헌법제도를 존중한다, 비록 졌지만 이런 재판제도라면 받아들일겠다, 재판을 한 법관들에게 수고했다,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사회 통합 아닌가...”

—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들이 가능할까요.

“과거 회고적인 판단이 아니라 현재의 법 질서를 형성하고, 나아가 미래의 법질서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의사결정의 공통점입니다만, 사법 판단에 있어서도 결론의 중요성 못지않게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좀 더 국민과 소통하면서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판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일도양단식의 재판이 아니라 재판부가 조정자로 들어가서 양 당사자의 이익을 조정해주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통해 제3

• **崔원장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경기중·고를 졸업했다. 대학 4학년 시절 故 金道稔교수의 조안에 따라 공법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해 1967년 명지대 강사를 거쳐 1971년 모교 법대 교수로 부임했다. 이후 모교 부총장(총장 직무대리)을 비롯해 한국공법학회장, 한국행정법학회회장, 동아시아행정법학

회,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 대법관제청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쳤다.

최근 10여 년간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위원회’, ‘행정소송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맡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사법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둑애호가로 본회 동문 바둑대회 심판위원장을 맡고 있다.

의 해결방안을 찾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권익침해가 명백히 예상될 때 사전에 막는 ‘예방적 금지소송’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요.”

崔원장에게 “초대 원장으로서 포부가 있다면 무엇이냐”고 묻자 崔원장은 손가락을 들어 “저게 내 목표”라고 말했다. 崔원장이 가리키는 입구 쪽에 붙은 A4 종이 한 장에

를 배우고,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한국의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 수많은 법조인들을 양성하셨는데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법을 제정하고 법을 해석하고 법을 집행하는 일은 성스러운 일”이란 인식을 가졌으면 합니다. 성직자들이 갖는 자세와 같이 법을 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한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떤 역경도 이겨낸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 능력이 지난 50년 사이에 압축적으로, 종합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민족이고, 그래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사와 자격과 철학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과제인 남북통일을 지혜롭게, 평화적으로 이뤄내길 기대합니다. 서울대인들이 민족적 DNA를 잃지 말고 그런 역사를 이루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1의 원칙은 규칙적인 생활이지요.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걷습니다. 걷기는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닌가 합니다. 순리적으로 세상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기본적으로 감사하면서 마음의 건강을 지키려고 합니다.”

—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1의 원칙은 규칙적인 생활이지요.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걷습니다. 걷기는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닌가 합니다. 순리적으로 세상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기본적으로 감사하면서 마음의 건강을 지키려고 합니다.”

1시간 30분 가량의 인터뷰가 끝났다. 가슴속에서 뿌듯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끊임 없이 묻고 고민하는 철학자의 모습에서 사법의 위기도 언젠가 갇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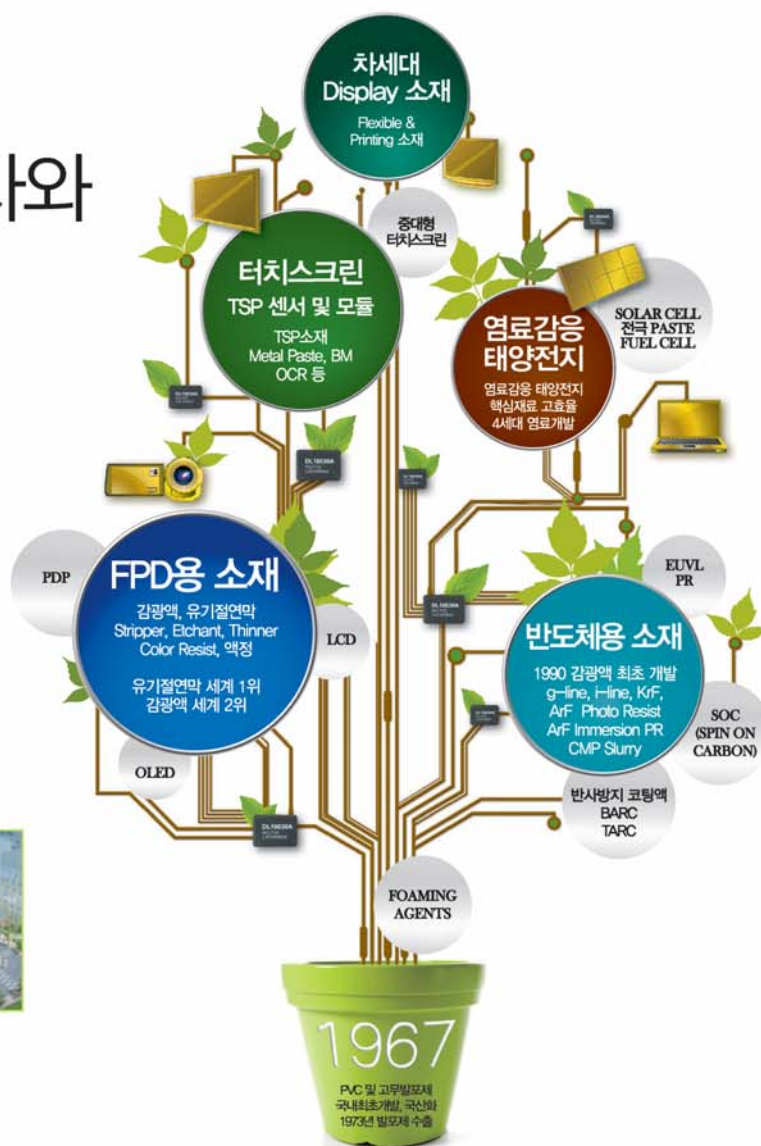
(사진·정리= 金南柱기자)

동진세미켐의 소재기술은 전자산업의 역사와 함께 합니다

LEADER IN MATERIAL SCIENCE,
DONGJIN SEMICH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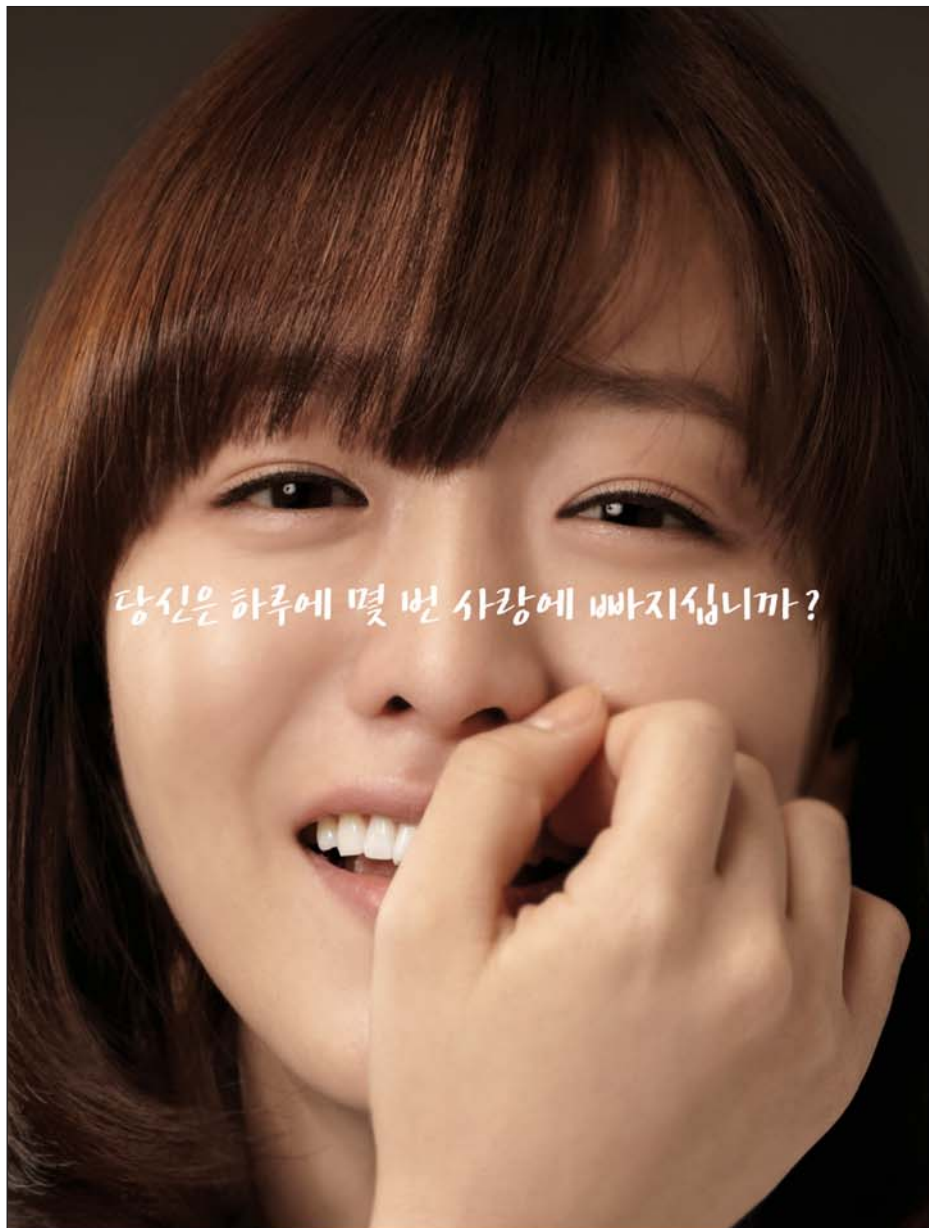


- 판교 연구소
- 염료감응태양전지
 - 인쇄전자 소재
 - 차세대 전자전달 유무기소재
 - 봉지재



DONGJIN 동진세미켐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02
23층(상암동, KGIT센터)
Tel 02.6355.6144 | Fax 02.325.9459
Homepage www.dongjin.com



당신을 하루에 몇 번 사랑에 빠지십니까?

보이지 않는 기술로
하루에도 수없이 당신과 사랑에 빠지는
기업이 있습니다

수많은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을 만드는 삼성전기
당신이 TV를 볼 때도, 누군가와 통화를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노트북을 켜거나 게임을 즐길 때도
보이지는 않지만 삼성전기는 언제나 당신 곁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몰라주셔도 당신의 생활이 더 즐거워지고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보이지 않는 기술에 담긴 삼성전기의 마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 삼성전기

“모교 120년사는 ‘개학 1895년’의 심화작업”

동문록 찾아서

모교 120년사 편찬위 李泰鎮위원장

본회는 지난 연말 모교 국사학과 李泰鎮(사학61-65) 명예교수를 서울대 120년사 편찬위원장으로 선임했다.

李위원장은 국내외 우수 대학의 개교 역사를 심층 연구, 모교 역사를 ‘개학 1895년, 통합개

교 1946년’으로 확정하는 데 이론적 토대를 다진 바 있다.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서 최고 석학인 李위원장을 지난 3월 20일 오후 관악캠퍼스에 위치한 편찬실에서 만났다.

대담 : 尹在錫(CBS 객원해설위원) 논설위원



— 일복을 타고나신 것 같아요. 국사편찬위원장 임기가 끝나자마자 모교 120년사 편찬위원장을 맡게 되셨는데...

“사실은 국사편찬위원장을 끝내고 좀 쉬고 싶었는데, 지난 연말 총동창회 林光洙회장(당시)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모교 120년사 편찬사업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제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 크나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120년사 편찬위원회는 상임 편찬위원과 단과대학 추천 편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상임 편찬위원은 저를 포함해서 편집부장에 역사교육과 金泰雄교수, 교열부장에 법학과 鄭肯植교수 등 총 4명, 연구위원으로 박사학위 소지자 및 교수 4명이 있고, 또 통합개교 이전의 역사를 갖고 있는 9개의 단과대학 추천 교수 9명이 단과대학 추천 편찬위원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방대한 사료를 수집할 사료수집요원으로 국사학과와 역사교육과 대학원생 5명을 임명했습니다.”

— 120년사 편찬이 결국 지난 2010년 공표한 ‘개학 1895년, 통합개교 1946년’을 심화하는 작업이라고 하겠는데요.

“지금 ‘국립서울대학교 개학 반세기’라는 사업 명칭 아래 1946년 통합개교 이전까지의 역사를 조사, 정리하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6년 이후의 역사는 이미 여러 번 편찬된 것이 있습니다. 역사 찾기가 왜 절실한가는 총동창회가 발간한 ‘正統과 正體性’이란 책을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고 생각합니다. 120년사는 그 흐름을 꿰뚫어 구체화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아시다시피 개교 원년 찾기 때도 적잖은 논란이 있었고, 지난해 120년사 편찬 계획이 나오자 일부 모교 교수들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평의원회 결정까지 난 공식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표면화된 데는 대략 세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正統과 正體性’에서 꼼꼼하게 제시하고 있는 사실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다음으로 ‘경성제대’에 대한 반발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1946년 8월 22일 미군정 법령 제102호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명백히 9개 전문학교와 경성대학을 합쳐 국립서울대가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흡수 통합된 9개 전문학교와 경성대학의



2016년 모교 역사 망라한 1천 쪽 발간 예정 국사편찬위원장 역임... 한국사 최고 석학

역사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여기에 고종 황제를 ‘나라 망하게 한 무능한 왕’으로 폄하하는 시각도 작용했죠.”

— 이른바 ‘치욕의 역사도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사실 일제가 경성제대를 만든 것은 月南 李商在선생 등 민족지도자들이 民立大學 설립운동을 벌인 것에 긴장해 선수를 친 겁니다. 한편으로 일본제국으로서는 만주 진출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절실했죠. 그런데 1946년부터 진짜 서울대학교의 역사라고 강변한다면 그건 더 치욕스럽죠. 우리 모교가 오로지 미군정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때 버리니 이런 타율의 역사가 더 좋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고종은 결코 무능한 군주가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나라를 부흥시키려 불철주야 애쓰셨죠. 대한제국이란 입헌군주국으로 근대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습니다.”

— 편찬 방향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正統과 正體性’에서 1차 그림은 그려졌고, 지난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내년 말까

• 李위원장은

모교 문리대 사학과를 나와 대학원에서 한국사 석사과정을 마친 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명예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모교에서 인문대학 국사학과 교수, 인

문대학 학장 등을 지냈으며 대외적으로는 역사학회장, 한국학술단체연합회장, 국사편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민국학술원 인문사회 제3분과 회원이다. 균형적 시각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세계 최고 석학이다. 특히 고종황제와 安重根의 사 연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지는 집필을 완료하려 합니다. 대략 본문 8백여 쪽 안팎, 부록 2백여 쪽 안팎으로 총 1천 쪽 안팎이 될 겁니다. 2016년 초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 자료 조사 과정에서 秘史들을 발견할 텐데 그런 내용들도 소개되나요.

“당연하죠. 예컨대, 李 僞열사와 咸台永 제3대 부통령이 법관양성소 1기 출신인 건 잘 알려져 있지만, 安重根의사 공판 때 한국 측 변호인으로 나섰던 安秉瓚변호사가 3기 출신이란 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편찬위원들이 큰 줄기를 구성하고, 9개 대학 편찬위원들에겐 각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학술원 회원으로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내셨으니, ‘국사 홀대’에 대해 누구보다 사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요.

“벌어진 일이 너무 커서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결국 과목 이기주의에서 역사, 한국사가 밀린 거죠. 과거 수능 필수였다가 선택과목으로 강등됐는데, 외워야 하는 것이 많은 과목 특성상 수험생으로선 기피 과목이죠. 이렇게 된 데는 중고교 교과서에 대해 관심이 부족했던 역사학과와 역사교육계의 책임도 있습니다. 좌우이념 문제를 떠나서 교과서 내용이 우선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교과서 정책에 무언가 문제가 많은 결과로 보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지만, 한국사 교과서를 실제로 워어보면, 사건, 사항 나열이 많고 ‘왜?’가 없어요. ‘왜?’가 없으니 暗記臺帳이죠. 집필자가 역사의 흐름을 얘기하면서 사실을 제시해야 학생들이 따라오는데...”

— 위원장님은 총동창회와 연계된 업무를 많이 하신 편이죠. 지난 몇 년 총동창회를 지켜보면서 느끼신 소회가 있으시다면.

“놀란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총동창회에서 신년교례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하는데, 근래 신년교례회에 가보면 롯데호텔 메인 홀이 꽉 찹니다.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광경입니다. ‘모래알 같았던 서울대, 이제 뭔가 새로워지는구나’ 느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개학원년 1895년, 통합개교 1946년’을 재학생들이 제일 반기는 것 같습니다. 각종 행사 때마다 팝핑트에 이 문구를 크게 넣거든요. 아마 재학생들이 오랜 역사를 내세우는 K대, Y대에 주눅이 들었다가 역사 찾기를 계기로 우리도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된 듯합니다.”

(사진 = 邊廷朱기자·정리 = 林香默기자)



법대 成樂寅교수



경영대 趙東成교수



자연대 吳世正교수



공대 姜泰普교수



자연대 金明煥교수

총장 선거 일정

4월 16일 소견 발표(연건 캠퍼스)→4월 18일 소견 발표(관악캠퍼스)→4월 25일 정책평가→4월 30일 후보 3명 선정→6월 중 후보 1명 선임→7월 20일 총장 임기 시작

총장 예비후보자 5명으로 압축

첫 간선제 작업 본격 돌입

모교 소식

법인화 이후 첫 간선제로 진행 되는 모교 제26대 총장 선거가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모교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는

지난 4월 3일 총장 후보 대상자 소견 발표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12명의 총장 후보 대상자 중 총장 예비후보자 5명을 선정했다. 총장 예비후보자 5명은 법학부 成樂寅(행정69-73)교수, 경영학과 趙東成(경영67-71)명예교수, 물리천문학부 吳世正(물리71-

75)교수, 재료공학부 姜泰普(섬유공학71-75)교수, 수리과학부 金明煥(수학73-77)교수이다(득점순). 이어 총추위는 4월 25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총장 예비후보자의 정책 토론과 합동 연설, 정책평가 등을 펼친 후

30일 최종 총장 후보자 3명을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교직원 정책평가단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2백40명으로 구성되며 현 총장과 부총장, 이사, 평의원회 의장, 학장, 처장의 보직에 있는 교수 및 총추위원, 총장선출 행정지원단 구성원은 추첨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사회가 총장 후보자 3명 중 1명을 차기 총장 후보로 선임하면 교육부 장관의 제정 요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오는 7월 20일부터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지난 3월 20일 총추위 제4차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12

명의 총장 후보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정치외교학부 黃秀益(정치60-64)명예교수 △경영학과 趙東成명예교수 △전기정보공학부 朴鍾根(전기공학69-73)교수 △법학부 成樂寅교수 △재료공학부 金道然(재료공학70-74)초빙교수 △경영학과 朴吾銖(경영71-75)교수 △재료공학부 姜泰普교수 △물리천문학부 吳世正교수 △기계항공공학부 李愚日(기계공학72-76)교수 △수리과학부 金明煥교수 △법학부 鄭宗燮(법학77-81)교수 △사회교육과 曹永達(사회교육79-83)교수(입학년도순)

英 대학평가기관 THE 발표

모교 '학계평판도' 26위로 꺾충

모교(총장 吳然天)가 영국 대학평가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에서 실시한 '학계평판도' 순위에서 작년 41위에서 15단계 상승한 26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1년 THE 평가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순위이며, 아시아권에서는 도쿄대(11위), 교토대(19위), 싱가포르국립대(21위)에 이은 4위에 해당된다. THE 학계평판도는 학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지도 조사로 THE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대학

종합순위의 한 항목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1백33개국 1만5백36명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순위를 집계했다. 한편 영국 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14 세계대학평가 학과별 순위'에서 모교는 화학분야(16위)를 비롯해 화학공학(17위), 환경과학(18위), 전기·전자공학(19위), 기계항공공학(25위) 등 이공계열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제5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간호대학

간호대학(학장 朴賢愛)은 지난 3월 4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강당에서 제5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가졌다. 행사는 3학년 학생들의 촛불 의식과 나이팅게일 선서에 이어 朴賢愛학장의 식사와 모교 邊昌九교육부총장, 吳秉熙병원장,

梁光姬간호대동창회장의 축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柳寅哲치과병원장, 모교 병원 宋慶子간호본부장, 의과대학 姜大熙학장, 치의학대학원 李在一원장, 의학대학원 金相政학사부학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朴賢愛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돌봄 대상자들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이고 대상자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며, 또 보건의료서비스팀 구성원들과 팀워크를 잘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협력하는 태도를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간호대학 3학년 학생들이 임상실습에 앞서 나이팅게일의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인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로 부모님과 선후배 앞에서 촛불을 점화하고 선서하는 행사로, 매년 3월 초 시행되고 있다.

사회과학대 학장에 朴贊郁교수 임명

지난 3월 25일 모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에 정치외교학부 朴贊郁(정치72-76)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신임 朴贊郁교수는 1976년 모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 모교에 부임해 정치학과 학과장, 미국학연구소 소장, 한국정치연구소 소장 등을 지냈으며, 2010년 모교 총장 표창을 받았다. 또 미국 듀크대 정치학과 초빙교수, 일본 와세다대 대학원 정치학과 연구과 방문교수, 재단법인

미래인력연구원 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한국정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부회장, 국민대통합위원회 갈등관리포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돌아다니는 시각'展 미술관

미술관(관장 金成燮)은 지난 4월 3일부터 5월 25일까지 모교 관악캠퍼스 미술관 전시실에서 '돌아다니는 시각' 기획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인간이 의지의 표현으로 '이동'이라는 방법을 취할 때 우리의 생활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어떤 시각적인 변모를 보여왔고,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제시하고 있다.



'서브라임' 학습공동체 협약식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소장 林哲一)는 지난 3월 6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서브라임(Sublime: 라틴어로 숭고함)' 학습공동체 장학기금 협약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서브라임 학

습공동체는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대학공부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지원프로그램으로 9명의 신입생과 멘토, 리더, 교수 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총 53명의 신입생이 참여해 주별별 학습공동체 6개 그룹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14 서브라임 장학기금은 총 4천9백여 만원으로 학생들의 학습활동비로 사용될 예정이며, 후원기업은 참여 학생들에게 방학 중 기업 탐방 및 인턴십의 기회를 제공한다. (香)

행정대학원 趙錫俊 명예교수

모교에 장학기금 2억원 기부

모교 행정대학원 趙錫俊(대학원 57졸) 명예교수가 행정대학원에 장학금으로 2억원을 쾌척했다.

지난 3월 20일 모교는 吳然天 총장, 趙錫俊 명예교수, 南益鉉 기획처장, 행정대학원 金俊基 원장, 발전기금 金炯周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석준 행정대학원 장학기금’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에 조성된 기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행정대학원 학생들이 국가공동체 및 세계 무대의 인재로 성장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趙錫俊 명예교수는 “지난 1950년대에 미국의 한국 원조 프로그램인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장학생으로 유학을 가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며 60여년 전 받은 혜택을 후학들과 사회에 환원한다



趙錫俊 명예교수, 吳然天 총장

는 뜻을 밝히고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고민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趙錫俊 명예교수는 행정대학원 제도를 형성하고 공공조직학을 도입해 우리나라 행정학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1970년 모교 관악캠퍼스 이전과 학제 개편을 주도해 모교의 위상 확립에 기여했다.



朱榮涉·朴永卓·鄭晚基·吳然天·李建雨·尹友錫·李俊植·韓宗勳 동문

산학협력 전담센터 개소

공과대학

공과대학(학장 李建雨)은 지난 3월 10일 관악캠퍼스 해동학술문화관에서 ‘SNUe 컨설팅 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SNUe 컨설팅 센터’는 대학과 산업계 간의 문제 해결 채널로서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으며, 모교 화학생명공학부 韓宗勳(화학공학80-84)교수가 초대 센터장을 맡았다.

모교 공과대학 교수진 대부분이 참여해 건설, 기계항공, 산업공학, 조선해양, 원자핵, 컴퓨터, 화학생물 등 전 분야를 지원하며 기술사업화, 기술자문 및 감정, 기술교육, 창업지원, 보육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에 대학의 기술과 기업을 연계하는 매칭 메이킹 시스템(match making system)을 통해 기술자산의 환원과 국내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래를 설계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될 인본교육을 바탕으로 남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치의학대학원 기초과학교육을 바탕으로 전문지식 습득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은 7년 학제로 운영되며, 학사 교육과정(3년)은 학습·소통·자기관리 능력을 갖추는 것과 인문학소양과 봉사리더십 함양을 목표로 한다. 또 대학원 교육과정(4년)은 전문직업정신, 대인관계기술, 비판적 사고, 임상정보수집, 진단치료계획, 구강건강구축, 건강증진의 7개 핵심역량을 배우게 된다. <秀>

학·석사통합과정 개설

치의학대학원

치의학대학원(원장 李在一)은 지난 3월 12일 모교 관악캠퍼스 멀티미디어강의동 2층에서 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 개설 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기념식은 2014학년도 학사·전문석사통합과정 신설에 따라 최초로 입학한 45명의 학사과정 신입생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더욱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학습 환경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개최한 자리다.

吳然天 총장은 축사를 통해 “미

재학생의 소리



민주적 리더의 산실, 토론동아리

저희는 지난해 만들어진 토론 및 봉사활동 동아리입니다. ‘오바마와 같은, 한국을 이끌어갈 세계적 인재를 길러보자’는 관악사 김태완 사감님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아크로폴리스는 관악사의 지원 아래 학생 자율 동아리로 운영됩니다. 비록 신생 동아리이지만, 소통·봉사·팀워크라는 세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통입니다. 아크로폴리스는 매주 화요일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함께 말하고 토론하며 소통의 능력과 태도를 기릅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매주 전문가 강사를 초청해 말하기 관련 강의도 함께 수강할 계획입니다. 둘째, 봉사입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우리 사회’라는 공동체 의식에 기초해 우리 사회에 토론과 소통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토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팀워크입니다. 팀워크는 함께 활동

한다는 것입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우리 사회를 위한 비전을 하나의 팀으로서 수행합니다.

소통, 봉사, 팀워크의 세 가지 가치는 물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하지만 아크로폴리

고, 저희의 활동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의 자질을 갖추려는 노력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됩니다.

체 게바라는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꾸자”라고 말



스의 목표는 단순한 ‘리더 양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다른 이들과 소통하며, ‘나’에서 확장된 ‘우리’의 공동체 의식과 봉사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리더의 자질이기에 이전에 민주시민의 덕성 그 자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리더와 팔로워의 구분은 ‘우리, 시민’으로 통합되

했습니다. 현실주의자가 현실에만 안주한다면, 이상주의자가 이상에만 머무른다면 세상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를 위한 아름다운 이상은, 오직 여러 사람과 소통하며 노력할 때에만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이상과 현실을 이어주는 바로 그 곳,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이 요구되는 그 곳에 서고자 합니다.

金俊泰(정치외교09입)

아크로폴리스 회장

since 1999

S. Noble 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입니다

국내최초, 최고의 노블레스 결혼정보클럽 - S. Noble

결혼으로는 비슷비슷해보이는 다이아몬드와 큐빅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듯, 결혼정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노블은 금방 생겼다고 없어지는 수많은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십수년의 노하우와 상류층 인맥관리로 대한민국 노블레스 결혼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느껴보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에스노블만의 푸리값은 성공매칭서비스를.

- 엄정한 심사를 통한 우수한 멤버들로 업계 최고의 성혼율을 자랑
- 고급인의 네트워크를 통한 클럽 외부 이상형까지의 외부매칭 서비스
- 회원가입문의 T.02.3445.4777 www.snoble.com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8-7호 로데오몰라자 7F

대한민국 1%의 결혼정보클럽-

S. Noble

정년교수 프로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교에서 학문 연구와 후학양성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교수 24명의 정년· 명예퇴임식이 지난 2월 28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의 삶과 그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분들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한다.



許成道교수·중문학

68년 모교 중어중문학과에 입학해 72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85년 모교 중어중문학과 교수로 부임해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인문대 학생부학장, 중앙도서관장, 한국중국어 문학회장 등을 지냈다.



姜正懋교수·수리과학

67년 모교 수학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76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82년 미국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83년 모교 교수로 부임해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교 수학연구소 연구원을 겸무했다.



金明洙교수·화학

67년 모교 화학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76년 미국 시카고대에서 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9년 모교에 부임해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자연과학종합연구소 분자과학연구부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학부장 등을 지냈다.



白明鉉교수·화학

67년 모교 화학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미국 시카고대에서 화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77년 모교로 부임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자연대 화학교육과장, 대한화학회 부회장,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회(IUPAC) 위원으로 활동했다.



李景馥교수·지구환경과학

68년 모교 해양학과에 입학해 76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프랑스 보르도 제1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82년 모교로 부임해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자연과학종합연구소 지구환경과학연구부장, 해양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河良淑교수·간호학

67년 모교 간호학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와 간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 간호학과 교수로 부임했으며 모교 가정간호수과정장, 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 한국정신보건간호사회 회장 등을 지냈다.



趙東成교수·경영학

67년 모교 경영학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미국 볼링그린주립대에서 석사학위,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78년 모교 경영학과 교수로 부임해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교 경영대학장, 한국경영학회 회장, 지속경영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安建懋교수·건설환경공학

67년 모교 건축학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건축학 석사학위, 하버드대와 경원대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98년 모교에 부임해 후학양성에 힘썼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全京秀교수·건설환경공학

67년 모교 토목공학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미국 조지아공과대에서 석사학위, 일리노이대 어바나-선펜캠퍼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92년 모교로 부임해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대한토목학회 회장, 대한교토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孫惠俊교수·재료공학

68년 모교 금속공학과에 입학해 72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미국 유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82년 모교로 부임해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공대 자원공학과장, 대한금속재료학회 비철분과 위원장 등을 지냈다.



盧祥夏교수·바이오시스템

66년 모교 농공학과에 입학해 70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농공학 석사학위, 미국 미주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로 부임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모교 농생대 생물자원공학부장, 한국농업기계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卓泰文교수·바이오시스템

72년 한양대 고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한양대에서 석사학위, 일본 도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에 부임해 후학양성에 힘썼으며 모교 농생대 천연섬유학과장·생물자원공학부장, 한국막학회 회장, 세계막학회대회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權寧傑교수·디자인

69년 모교 응용미술과에 입학해 76년 졸업,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에서 디자인학 석사학위, 고려대에서 건축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98년 모교에 부임해 미대 학장, 미술관장, 서울시 부시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샘 사장을 맡고 있다.



尹賢珠교수·성악

67년 모교 성악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미국 맨해튼 음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에 부임해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음대 성악과장, 오페라연구소장, 전국여교수연합회 이사 등을 지냈다.



白淸心교수·기악

71년 모교 기악과를 졸업한 뒤 브뤼셀 왕립 음악원과 오스트리아 비엔나대를 수료했으며, 독일 데트몰트 음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82년 모교로 부임해 후학양성에 힘썼으며 모교 음대 기악과장, 한국음악협회 회장, 한국스즈키음악협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金聖權교수·의학

68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4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82년 모교 의학과 교수로 부임해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병원 부원장,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국제신장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金典鈞교수·의학

67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3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로 부임했으며 모교 중앙도서관 의학분관장, BK21 의생명과학연구사업단장, 대한생리학회 이사장, 한국뇌신경과학회 이사장, 라파엘클리닉 대표 등을 지냈다.



朴貴媛교수·의학

66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2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 의학과 교수로 부임해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대한소아외과학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徐廷璘교수·의학

67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3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로 부임해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회장,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회장, 아·태 소아소화기영양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成相哲교수·의학

67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3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 의학과 교수로 부임해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병원장, 대한병원협회 회장,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車重鎔교수·의학

69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6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78년 석사학위, 80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83년 모교 의학과 교수로 부임해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대한해부학회 이사, 한국뇌신경과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韓太倫교수·의학

74년 모교 의학과를 졸업한 뒤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82년 모교 의학과 교수로 부임해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대한재활의학회장, 아시아 오세아니아재활의학회장, 국민건강교육개발원장 등을 지냈다.



鄭用德교수·행정학

69년 모교 식품공학과에 입학해 73년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석사학위, 남가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를 거쳐 94년 모교에 부임했으며 한국행정학회 회장,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다.



裴珽植교수·치의학

74년 모교 치의학과를 졸업한 뒤 모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92년 모교 치의학과 교수로 부임해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치과대학 교무부학장, 치의학박물관장, 대한치과보존학회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등을 지냈다.

함께하면 행복해지는 국민건강연구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국민건강을 지켜온 일동제약...
한결같은 믿음과 노력으로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ILDONG 일동제약
SINCE 1941



PACIFIC HOTEL 남산홀 연회 안내

남산홀은 우아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단독 연회장으로 아기 돌잔치!
고회연, 동창회, 가족 모임, 세미나 등
“맞춤 연회”로 만들어 드립니다

┃수용 인원┃ 50~130명

┃특전 사항┃ 빔프로젝터 무료 사용
테이블 플라워 & 캔들 데코
3단 축하케익, 샴페인 무료 제공
돌잡이 용품 제공

※ 행사준비 및 편의를 위해 행사시간 동안 단독객실 제공함.

PACIFIC HOTEL

문의 및 예약
02-3782-3366

www.thepacifichotel.co.kr

http://blog.naver.com/horn8383

29년 전통의 영진횃집

29년의 경험과 노하우로 신선토와 푸짐하고 다양한 스키다시, 광안리해수욕장의 멋진 풍경과 함께 하는 최선을 다하는 영진횃집이 되겠습니다.



A코스 - 모듬회 + 모듬해물(산낙지, 멍게, 해삼, 전복회) + 생선구이 + 우럭탕수육 + 탕스타 or 개요리 + 화초밥 + 매운탕 및 스키다시(식사포함)

B코스 - 모듬회 + 모듬해물(산낙지, 멍게, 해삼, 전복회) + 생선구이 + 우럭탕수육 + 화초밥 + 매운탕 및 스키다시(식사포함)

C코스(기본코스) - 모듬회 + 모듬해물(산낙지, 멍게, 해삼, 전복회) + 생선구이 + 화초밥 + 매운탕 및 스키다시(식사포함)

■ A코스 서비스요리는 계절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81-84 민락회타운 2층 TEL : 051-757-9991 Mobile : 010-3597-7391 E-mail : nnn5001@hanmail.net



참존 30년 피부과학의 결정체, 참인셀

0.1mm 깊이의 피부를 알기 위해

30년 높이의 기술을 쌓아온 참존-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위해

참존 30년 피부과학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CHARM IN CELL



CHARMZONE 참존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 고객센터 080 022 0204 | www.charmzone.co.kr

30
30 YEARS OF
CHARMZONE
1 9 8 4
2 0 1 4



정직한 사람만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고 그 기업만이 살아 남는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저렴한 아이스크림을 만들자!
아이스크림 한길만 걸어온 60년.. 앞으로의 60년도 정직하게 만들겠습니다.

www.lavelee.co.kr Tel. 061-372-0151, 031-797-3501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쌍충로 127-1 대표이사 최창우

콩트 릴레이

행복과 불행 사이

朴 炫 瓚(독문82-88)
스토리 로직 대표·작가



1.

‘행복한 가정은 대개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사연이 다르다.’ 아무래도 지난 겨울 보충 수업시간에 쓸데없이 이 문장을 입밖에 꺼낸 것이 문제의 시발이었다. 서울에서 동남향으로 한 시간 반쯤 달리면 도착할 수 있는 지방 도시에서, 이 십 년 넘게 아무 일 없이 사립고등학교 국어교사를 하며 잘 살고 있던 장 선생은 그런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아내가 따지고 든다면, ‘자, 이래도 내 생각이 틀렸다고 할 텐가’라며 자신 있게 내세울 근거는 없지만, 요 몇 달 자신에게

는 언제나, 아무렴 인구 삼십만이 넘는 도시에 기차역 주차장은 그야말로 손바닥만한, 그것도 유료주차장이 달랑 하나 있으니 도대체 시민들 알기를 뭘로 아는 거야. 연방 투덜대면서 길 건너 대형마트 주차장으로 차를 몰아 빛의 속도로 차를 세운 장 선생은 허겁지겁 숨이 목에 차서 역사에 들어서며 습관적으로 개찰구 위에 달린 전광판을 확인한다.

다행이다. 연착이다. 그것도 14분이나. 아내가 옆에 있었으면 오늘도 바가지 벼락을 면치 못했을 터. 하지만 이번은 장 선생 홀로 상경길이다. 삼월인데도 바람이 차

문이었다.

아내에게도 동료 교사들에게도 대놓고 말한 적은 없지만, 장 선생은 고교평준화 실시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았다.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면 학교 입장에서 좋은 수도 있겠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성적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만을 가르치던 시절이 아쉽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장 선생은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인생이란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는 법. 고민한다고 해결책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그날그날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장 선생은 아들딸이 모두 인(in)서울 대학교에 진학했고, 공대 출신이라 상대적으로 쉽다고는 하지만 그 어렵다는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으니 말이다. 선생 월급으로 어떻게 그런 재산을 모았느냐고 부러움 반 시기심 반의 눈초리를 받을 때도 있지만, 질 년 전에 사 놓은 땅 앞으로 새로운 기차역이 들어서고 아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건물에서 딱딱딱박 월세가 입금되는 것 정도는 자신의 행복한 삶의 부차적인 조건쯤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장 선생은 몇 개월 전부터는 예전에 제대로 읽지 못했던 고전을, 물론 평준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준비도 겸해 다시 읽어보기로 했는데, 서재에서 꺼내든 첫 번째 책이 톨스토

의 ‘안나 카레니나’였다.

그때서야 장 선생은 오늘 예식을 마친 후 아들을 만나기로 한 약속을 기억해냈다. 아들은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서 이를 전 밤늦게 전화를 했었다. 아들이 장 선생을 만나자고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대개는 아이 엄마가 아이들에게 연락해서 만나곤 했지 아들이 직접 요청한 적은 없었다. 물론 예전과는 달라진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 선생은 아들이 자신을 챙겨주는 것 같아 대견하고 얼마간 기대도 됐다. 삼성역 부근의 이면 도로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서 아들을 만났다.

“아빠 저, 여자 친구와 결혼하려고요.”

“뭘, 그런 이야기를 앞뒤 없이.” 장 선생은 식은땀이 났다. 이럴 때 아내가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아빠도 우리 둘 사이 다 알고 계셨잖아요. 지난 달 장례식 마치고 아빠가 해주신 말씀,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행복한 가정은 대개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사연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빠의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돼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스펙 수집하듯 쌓아도 그게 불행해지지 않는 보장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보다는 불행해지지 않는 최소한의 조건을 찾는 게 더 현명한 일이란 생각이 들고, 그건 제각각 자기 입장에서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면 제각각 아무리 원하는 것이 달라도 일치하는 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 해봐도 그 아이와 헤어지기 힘들 것 같아요. 그 아이 엄마도 작년에 돌아가시고 아빠도 곧 다시 외국에 나가셔야 한대요. 일 년 후에도 다시 오신다니 어차피 이번에 확실히 두 분 아버님께서 허락해주시면…”

장 선생의 아내는 한 달여 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 심각한 뇌출혈로 인해 입원한 지 사흘만에 유언 한 마디 남기지 못하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 아직 젊은 나이였기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알고 보니 이미 수 년 동안 뇌졸중의 증세를 앓고 있었다고 했다. 어떻게 가족들이 이처럼 무심할 수 있었느냐는 수군거림도 있었지만 장 선생 역시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4.

장 선생은 항상 5호차 69번 좌석을 예매한다. 왜 그런 습관이 들었는지는 모른다. 한 번 그 자리에 타고 다니니 그게 편했고 굳이 바꾸기 싫었다. 토요일에 공휴일 저녁 시간이라 열차는 거의 만석이다. 서울을 빠져나가 속도를 높이기 시작할 즈음 꼭 아들 나이 또래의 청년이 옆자리에 앉았다. 청년은 뭔가 먹을 것이 든 봉지를 들고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누나, 나는 기차를 타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어. 그게 뭐냐고? 달걀 3개와 사이다 1병을 사지. 왜 그런 줄 알아? 들어봐.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가끔 기차 여행을 갔어. 엄마는 그때마다 항상 달걀 3개와 사이다 1병을 사 주셨거든. 뭘? … 누나, 나는 말이야. 가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기분이 우울할 때도 달걀하고 사이다를 사 가지고 집에 들어간다고. 왜 그런 줄 알아?”

“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스펙 수집하듯 쌓아도 그게 불행해지지 않는 보장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보다는 불행해지지 않는 최소한의 조건을 찾는 게 더 현명한 일이란 생각이 들고, 그건 제각각 자기 입장에서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면 제각각 아무리 원하는 것이 달라도 일치하는 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



일러스트레이터 蘇余廷 (디자인09-13)

벌어진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같은 결론에 도달하곤 했다.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평소에는 전혀 하지 않던 짓, 고교평준화가 되기 전에는 도무지 할 필요도 없던 그런 행동, 이를테면 심오한 의미일랑은 잘 알지도 못하는 고전 속의 명문장들을 외워 가면서 학생들 앞에서 허세를 벌인 게 탈이었다.

2.

보름 전, 장 선생은 아침부터 십 년이 넘는 낡은 차를 급하게 몰아왔다. 집에서 기차역까지는 겨우 15분 남짓, 최단거리로 잡아 간신히 역 앞 교차로 쪽으로 내달리는데 멀리 주차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 불현듯 뇌리에 스친다. 아자, 오늘이 삼월 첫날이니 공휴일 아닌가. 그렇다면 틀림없이 ‘만차’일 터. 예잇,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그나마 주차장에 갔다가 차를 돌리는 시간 낭비는 줄일 수 있었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아무튼 늦게 출발한 자신을 탓하기보다

다. 잔뜩 어깨를 웅크리고 모직 윗도리의 깃을 세웠다. 기다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고 느낀 사람은 장 선생만이 아닌 듯, 젠장 여기 기차는 제 시각에 정확히 출발하는 적이 없어. 철도 파업 때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도 오히려 시간을 잘도 맞추더니만, 정작 평소에는 특하면 연착이야. 중늬은이 몇이 큰 소리로 떠든다. 그래도 장 선생은 상경할 일이 있을 때마다 거의 철도를 이용할 것이다. 장시간 좁은 차 안에 갇히게 되는 운전엔 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여러모로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 때문인데, 자가용은 물론 버스에 비해서도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겠다.

평소 사회 문제에 진지한 의견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피해 온 그였지만 얼마 전 철도민영화반대 파업 기간 동안에는 하마터면 1인 시위를 벌이는 철도노동자에게 가서 악수를 청할 뻔했다. 뭘 딱히 그들의 주장이나 대의명분에 공감해서라기보다는 지금의 체제가 바뀌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

이의 ‘안나 카레니나’였다.

3.

기차는 확실히 빨라졌다. 몇 개 간이역을 뒤로 밀어내고 직선화 구간이 늘어난 만큼 상경길은 단축됐다. 한 시간여 흔들리다 보니 종착역이다. 장 선생의 오늘 서울 행 목적지는 강남 한복판의 호텔 예식장이었다. 팔 년 전쯤 아내와 유럽 쪽으로 패키지 여행을 갔는데 일행 중에서 10년 정도 선배인 부부를 만나게 됐고, 워낙 친화력이 좋은 그쪽 사모 덕분에 그 후 몇 차례 국내 여행도 동행하고 서로의 집도 방문하면서 나름 각별하게 지내는 사이가 된 그 선배의 아들 결혼식이 있었던 거다.

시내 전철 타기에도 제법 익숙해져서 예식장 가까운 전철역에서 나와 강남대로에 올라서니 아직 심여 분 여유가 있었다. 거의 일 년여 만에 보는 데도 선배 부부는 더 젊어 보였다. 기술 임원으로 재취업을 한 선배는 예전보다 경제 사정이 나아졌다고 귀뜸을 했다. 장성한 아들딸을 둔 터라 장

☎ 1588-3883
www.theon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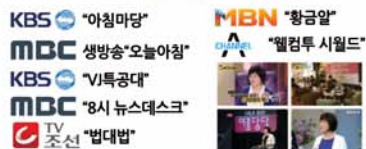
☎ 1588-3883
♠ 더원결혼정보

1등 결혼 약속 결혼, 더~원 해요

와튼 MBA출신이 운영하는 더원
대한민국 대표결혼정보회사

- 서울대 동문과 자녀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 무료 미팅파티 초대 : 5/17(메리어트호텔) 문의 1588-3883

TV속 중매고수들



17년 노하우 大賞

- 고객감동브랜드 大賞 2년 연속 (2013,2012) 결혼정보 1위
- 대한민국 올해를 빛낸 히트상품 (2012) 결혼정보 1위
- 고객사랑 브랜드 大賞 (2011) 결혼정보 1위
- 올해의 브랜드 大賞 (2010) 결혼정보 1위
- 한국을 빛낸 대표브랜드 大賞 (2010) 결혼정보 1위

홍유진 커플매니저 / 더원결혼정보
한국 대표 커플매니저 19년 경력 중매고수
1만건 상담 1,000쌍이상 성혼
KBS 아침마당, MBN 황금알 등 중매고수 출연



결혼중개업 등록번호 : 서초 080013



패드인쇄기 및 FIBER 레이저 마킹 시스템

저희 일우인터내셔널은 TOTAL PRINTING SOLUTION PROVIDER로서 패드인쇄기 및 FIBER 레이저 마킹기를 국산화 개발하여 국내외 반도체, 자동차, HDD, 전기 전자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 마킹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선박/항만 레이저 선박 접안감시시스템

저희 일우인터내셔널은 선박,항만,조선의 통신 IT 융합시스템을 개발하여 KEPSCO, KOGAS, KNOC,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POSCO, 한진해운, SK해운 등 국내외 공공기업, 대기업 및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POSCO건설 등의 건설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株) 一愚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우 진 태(원자핵공학과 71학번)

www.ilwooin.co.kr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33-7 금강펜테리움IT타워 A-311, A-901/902 Tel : 031-608-2451



평생 동안 50% 할인받고 산다

able 펀드마켓

당신의 온라인 펀드생활이 시작되는 곳!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평생 50% 할인받고,
펀드전문가의 투자컨설팅 서비스까지!

(단, 온라인전용펀드 및 온라인클래스펀드 제외)

2014년 말일까지 현대증권 홈페이지 내 able펀드마켓 HTS, MTS로 펀드를 신규가입하거나 able펀드마켓을 통해 펀드 이동을 신청하는 고객에게 분기 단위로 할인금액 계산 후 해당펀드 매수계좌로 캐쉬백 입금해드립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4-1137호(2014년 3월 5일~2015년 3월 2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들에 관해 충분한 설명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펀드 가입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세공과금 당사부담

able 현대증권

패션그룹영지 

Stay Dandy

arnaldo bassini



전속모델 연우진

국가고객만족도
롯데마트 3년 연속 1위!

“ 2013년에도 롯데마트는 고객님의 격려와 성원으로
국가고객만족도 대형마트 부문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2014년에도 좋은 품질, 가치있는 상품을 지속 개발하여
더 큰 만족을 드리는 롯데마트가 되겠습니다 ”



캠핑갈때

여주



전국 최초 국가 지정 쌀 산업특구



동 정

수 상

▲池堤根(의학56-62 모교 병리학 교실 명예교수) = 지난 4월 8일 대한의학회와 한국MSD가 제정한 제1회 대한 의학회 의학공헌 상 수상.

▲柳權永(의학72-78 모교 예방의 학교실 교수·아시아태평양암예 방기구 사무총장) = 지난 3월 21일 제7회 암 예방의 날 기념 식에서 홍조근정훈장 수훈.

▲徐判吉(수의학73-80 울산과학기술대 교수) = 지난 3월 21일 아산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제7회 아산의학상(기초의학부문) 수상.

▲李慶洙(의학76-82 성균관대 교수) = 지난 3월 21일 아산사회복지재단으로부터 제7회 아산의학상(임상의학부문) 수상.

▲李相起(서양사학81-87 아시아 N 발행인·본보 논설위원) = 지난 3월 3일 쿠웨이트 정부로부터 아시아와 아랍 사회의 교류 및 관계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황금보트상 수상.

▲金龍煥(조선공학83-87 모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 지난 3월 11일 한국공학한림원으로부터 젊은 공학인상 수상.

▲鄭星姬(국사82-86 동아일보 논설위원·본보 논설위원) = 지난 3월 24일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로부터 제8회 KBCSD 특별 공로상 수상.

▲金範式(수학85-89 고등과학원 교수) = 지난 3월 26일 서울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 청암상 과학상 수상.

▲許文明(가정관리86-90 동아일보 오피니언장·본보 논설위원) = 지난 3월 25일 삼성언론재단으로부터 제18회 삼성언론상 특별상 수상.

▲石鉉光(금속공학86-9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 지난 3월 11일 한국공학한림원으로부터 젊은 공학인상 수상.

▲鄭求龍(AMP 47기 인지컨트롤스 회장·한국상장회 사협의회장) = 지난 3월 19일 제4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 수훈.

▲權肅一(물리54-58 모교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 = 지난 3월 14일 대한민국학술원 제35대 회장에 선출.

▲李成茂(사학56-60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 지난 3월 14일 대한민국학술원 부회장에 선출.

▲李赫相(의학56-62 前인제대 백중앙의료원장) = 지난 3월 7일 학교법인인제학원 제3대 이사장에 취임.

▲金聖基(농경제58-64 농협동인회 회장) = 지난 2월 25일 사단법인 농협동인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재선임.

▲李五峰(교육61-70 前아주대 겸임교수·본보 논설위원) = 지난 3월 27일 아시아N·매거진N 편집위원장에 선임.

▲鄭明珠(미학64-71 물류산업연구원장·인하대 겸임교수) = 지난 3월 14일 한국식품포드체인협회 회장에 선출.

▲鄭日采(경대원67-69 다산그룹 명예회장) = 지난 3월 6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미주한인회원들에 의해 세계한인재단상 임고문에 추대.

▲宋弼鎬(경제68-72 중앙일보 발행인) = 지난 3월 20일 한국신문협회 정기총회에서 제44대 회장에 선출.

▲任洪宰(영문71-78 前주베트남 대사) = 지난 3월 6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정기총회에서 부회장 겸 사무총장에 재선임.

▲金承協(의학73-79 모교 영상의학과 교수) = 최근 대한영상의학회 평의원에서 차기 (2015년) 회장에 선출.

▲趙太庸(정치75-79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지난 2월 27일 외교부 제1차관에 임명.

▲權大永(식품공학77-81 한국식품연구원 선임연구본부장) = 지난 2월 24일 임기 3년의 한국식품연구원 제12대 원장에 선임.

▲薛原泰(영어교육77-83 前경향신문 선임기자·동북아역사재단 홍보교육실장) = 지난 3월 27일 아시아N·매거진N 편집국장에 선임.

▲許承虎(경영79-83 前동아일보 논설위원·본보 논설위원) = 지난 3월 24일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에 선임.

▲崔莫重(건축79-83 모교 환경대학원장) = 지난 2월 28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23대 회장에

선출.

▲徐大憲(의학81-87 모교 피부과학교실 교수) = 지난 3월 8일 임기 2년의 대한여드름학회 제6대 회장에 선임.

▲鄭在權(국문82-87 한겨레신문 에디터부부장·본보 논설위원) = 지난 3월 17일 한겨레신문 전략기획실장에 선임.

▲李昇勳(의학90-96 모교 병원신경과 교수·대한뇌졸중학회 학술이사) = 최근 미국심장뇌졸중학회 석학회원에 선임.

▲金綜植(ACAD 60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편집출판본부장) = 지난 3월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신문사 사장에 선임.

▲金永泰(영어교육53-57 한국소프트웨어세계화연구원 이사장) = 지난 3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연구원 개원식 및 심포지엄 개최.

▲俞東濬(잠사56-60 晶月 羅惠錫 기념사업회장·수원지부동창회장) = 오는 4월 26일 수원시 행궁동 자치센터에서 제17회 나혜석 바로알기 심포지엄 개최.

행 사

인 사

▲權肅一(물리54-58 모교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 = 지난 3월 14일 대한민국학술원 제35대 회장에 선출.

▲宋弼鎬(경제68-72 중앙일보 발행인) = 지난 3월 20일 한국신문협회 정기총회에서 제44대 회장에 선출.

▲崔莫重(건축79-83 모교 환경대학원장) = 지난 2월 28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23대 회장에

선출.



설립 20주년기념

제 1회 전국대학생 IEL Searching Quiz Contest 안내

우리대학에 IEL 사용을 촉진하고 우리 대학생들이 IEL을 더욱 친숙하게 접근하여 학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3월 24일부터 4월 11일까지 약3주간 제 1회 전국대학생 IEL Searching Quiz Contest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제1회 전국대학생 IEL Searching Quiz Contest 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KITIS 산학연정보(주) 홈페이지 및 각 대학도서관에서도 공지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ntest 기간 : 3월 24일(월) 부터 4월 11일(금)까지

Contest 참가자격 : 2014년 현재 IEL을 구독하고 있는 전국 대학의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학부 생

(* 현재 IEL을 구독하고 있는 대학은 서울대외 72개 대학입니다.

IEL 구독여부는 대학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 방법 : 온라인 Quiz방식이며 링크를 통해서 응모 가능합니다.

(* 링크는 KITIS 산학연정보(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상금(장학금) - 총500만원

* 1등 (1명)-200만원, 2등(1명)-100만원, 3등(4명)-각50만원

수상자 선정방법 및 시상식 : 기본적으로 Quiz 최다 득점자 순으로 선정되며, 동점자가 나올 경우 공개 추첨방식으로 선정됩니다.

* 시상식은 5월 20일 서울역 앞 Hilton 호텔에서 있을 KITIS설립 20주년 기념, IEEE세미나 후, 만찬장 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키티스 산학연정보(주)
KITIS Info. & Co., Ltd.

Authorized Dealer in Korea

http://www.kitis.co.kr TEL. 02-3474-5290(대)
대표 홍영표 (국제대학원 GLP 21기)

▲姜燦均(응용미술57-63 모교 디자인학부 명예교수)=오는 4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강찬균 새 손길' 작품전 개최.

▲柳興洙(법학58-65 남촌장학회 이사장)=지난 2월 22일 부산 수영구에서 장학생 60명에게 총 3천만원의 장학금 전달.

▲秋淵華(교육62-70 前제물포고 교장·吉瑛義선생기념사업회 회장)=지난 3월 1일 인천 제물포고에서 초대 인중·제고 교장을 지낸 吉瑛義선생 서거 30주년 추모식 개최.

▲李長茂(기계공학63-67 前모교 총장·기후변화센터 이사장·KAIST 이사장)=지난 3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全玲惠(기악63-67 경희대 명예교수·피아니스트)=지난 4월 10일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슈베르트 아티테 II'를 주제로 독주회 개최.

▲金勳東(농학63-69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지난 3월 6일 대한적십자사대회의실에서 특별회비전달식 및 상임위원회 개최.

▲姜駿一(물리63-69·작곡66입작곡가)=지난 3월 21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 '작곡가 시리즈'를 통해 대표작 공연.

▲李海植(국악66-69 前영남대 교수·작곡가)=지난 3월 20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 '작곡가 시리즈'를 통해 대표작 공연.

▲李圭碩(지구과학교육66-73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장)=지난 3월 20~21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과학교육과 창의 융합인재 양성'을 주제로 전국 과학교육담당자 세미나 개최.

▲嚴翼俊(건축69-73 한국기술사회 회장)=지난 2월 26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제50회 기술사의 날 기념식 개최.

▲金仁圭(정치69-73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본보 논설위원)=지난 3월 28일 한국전쟁기념관에서 터키, 태국, 콜롬비아, 필리핀, 미국, 영국 등지에서 유학온 6·26전쟁 참전용사의 손자녀 16명에게 장학금 수여.

▲金暎世(응용미술70-74 이노디자인그룹 대표)=지난 3월 21일 서울 을지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3층 둘레길 쉼터에서 YKDM(Youngse Kim Design Museum) 오픈식 및 이노브랜드 론칭 행사 개최.

▲李在然(가정관리70-7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지난 3월 4일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에서 '취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주제로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羅成淑(응용미술71-75 서울과학교육대 교수)=지난 3월 3~14일 서울 중립동 한국경제신문 환경갤러리에서 옷칠화 작품으로 개인전 개최.

▲尹在錫(화학교육71-75 CBS 객원해설위원·본보 논설위원)=오는 4월 21일 서울 도화동 SNU 장학빌딩에서 '토박이, 고향 서울을 걷다' 책잇이 마당 개최.

▲金永東(국악71-75 서울예술대 교수·작곡가)=지난 3월 22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 '작곡가 시리즈'를 통해 대표작 공연.

▲李勝鍾(사회교육75-79 모교 행정대학원 교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지난 3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李容式(토목공학79-83 문화일보 논설위원실장·관훈클럽 총무·본보 논설위원)=지난 3월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성 김 주한미국대사를 초청해 관훈토론회 개최.

▲金敬喆(한대원83-88 한국교통연구원장)=지난 3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4년 국제친환경자동차 시스템 포럼 개최.

▲문지형(기악93-97 첼리스트)=지난 3월 16일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베토벤, 슈베르트 등의 작품으로 첼로 독주회 개최.

▲金殷蘭(기악94-98 피아니스트)=지난 3월 18일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바흐, 베토벤, 브람스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조소연(기악94-98 피아니스트)=지난 3월 18일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바흐, 베토벤, 브람스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트)=지난 3월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조유리(기악96-00)동문, 첼리스트 신수정(기악95-99)동문과 함께 제5회 클랑 트리오폽기연주회 개최.

▲이지은(기악99-03 단국대 교수·피아니스트)=지난 4월 7일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베토벤, 드뷔시, 쇼팽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羅鍾億(AMP 48기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지난 3월 11일 탈북 청소년에게 경제교육을 하는 '통일과 나눔 아카데미' 개원식 개최.

■ 참가 명부를 봅니다 ■

▲鮮于宗源(법학41졸 前국회 사무총장)=3월 8일 별세(96세)
▲元虎出(경제49-56 前대구투자금융 회장)=3월 10일 별세(86세)
▲俞澤老(통신공학52-56 前한국통신진흥 대표)=3월 24일 별세(82세)
▲金榮煥(상학54-59 송원그룹 회장)=3월 21일 별세(80세)
▲崔昌郁(의학54-60 前순천향대 의대 학장)=3월 16일 별세(79세)
▲李相國(회화67-71 서양화가)=3월 5일 별세(67세)
▲徐載憲(행정67-71 前서울지법 부장판사)=3월 3일 별세(65세)
▲洪國善(재료공학76-80 모교 재료공학부 교수)=3월 14일 별세(57세)
▲崔在植(영문79-83 청담어학원 연구소장)=3월 17일 별세(55세)
▲徐康裕(AMP 3기 코지인터내셔널 회장)=3월 14일 별세(87세)
▲朴喜宅(AMP 6기 前범양건영 회장)=3월 23일 별세(85세)
▲鄭元民(AMP 13기 前국회의원)=3월 13일 별세(87세)
▲安基玉(AMP 16기 前중앙고속 사장)=3월 19일 별세(84세)
▲金正中(AIP 15기 前현대산업개발 부회장)=3월 13일 별세(71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 e메일 : snua1969@naver.com 또는 snua@korea.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동문전용상담 02.3445.2445
대표상담 1577-2050
www.nnoble.co.kr
편안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특별한 VVIP를 위한 No.1 노블 결혼정보, 엔노블에서 서울대 동문 및 자녀 분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모십니다.

엔노블은 국내 최고의 8개 명문대 총동창회, 22개 전문직 단체·기업과 협력하여 5천명의 회원에게 특별한 결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격과 수준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는 곳, 바로 엔/노/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엔 노 블
결혼 정보 회사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강남 080002

서울본사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50-16 상원빌딩 3~5층 부산지사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14 센텀리더스마크 4006호

www.sunny-intl.co.kr

SUNNY
Sunny International Inc.

주신태양물산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08, 랜드마크타워 1318호 | TEL : 02-555-0062

한국일보 2013년 4월 11일 목요일

비료무역 정통 ... 농촌 살리기에 앞장서

혁신인물 부문

박명학 회장

과학영농 = 고품질 비료시대
식량자급 돕는 '1등공신'

일간스포츠 2013년 2월 28일 목요일

비료무역 강자(强者), (주)신태양물산
신뢰경영으로 위기 타파(打破)

東亞日報 2013년 10월 24일 목요일

고기능 · 고품질 비료 수출입...
'과학영농' 전파

univera
남양알로에의 새 이름 유니베라

알로에의 면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성분, 면역다당체!

**당신의 알로에는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맥스피와 비교하세요!

알로엑스골드 맥스피

www.univera.com 제품문의 1588-1976



인간과 로봇의 만남을 통한 밝은 미래
(주)유진엠에스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산업용 로봇시스템



www.yujinms.co.kr

신 간

■ 커튼을 제끼면서

— 李相日 외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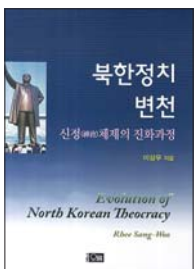
菽麥동인 회원인 李相日(독문 53-57)·鄭鎭弘(종교 56-60)·朱鐘演(국문 60줄)·郭光秀(불문 59-65)·李翊燮(국문 56-60)·金璟東(사회 55-59)·金明烈(영문 62줄)·金相泰(국문 56-60)·金學主(중문 52-56)·金容稷(국문 58줄)·金在恩(교육 50-54)·金昌珍(국문 57줄)·李相沃(영문 58줄) 동문 등 13명의 저자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오롯이 담아낸 에세이집.

표제작 '커튼을 제끼면서'에서 金在恩동문은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제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과가 됐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이 나를 맞이해 주기에 내가 살아 있고 새날이 탄생하기 때문이다"라고 적고 있다. <푸른사상刊·값17,000원>

■ 북한정치 변천

神政체제의 진화과정

— 李相禹 지음



신아시아 연구소 李相禹(행정 57-61) 서강대 명예교수) 소장이 최근 북한정치체제의 변천을 다룬 책을 펴냈다.

이 책은 李동문이 앞서 출간했던 '북한정치입문'(1997년, 2000년)과 '북한정치'(2008년)의 후속서로 분단 이후 태어난 한국인의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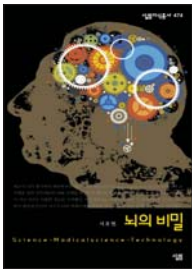
李동문은 이 책에서 북한이 이미 세상을 떠난 시조 金日成의 초인간적 권위에서 통치권의 타당근거를 찾는 神政체제로 변질돼 북한의 國體는 민주주의도, 인민주권 및 공화주의도 부인하는 1인 지배의 전제주의·전제주의 신정국가라고 소개한다. <오름刊·값22,000원>

■ 뇌의 비밀

— 徐維憲 지음

한국뇌연구원 徐維憲(의학 67-73)원장은 창조의 본산이며, 인류 최후의 도전인 뇌의 비밀을 일반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밝힌다.

그간 뇌에 관해서는 순수과학적



입장이나 신경 정신이상의 치료를 위한 의학적 입장에서 주로 다뤄져 왔지만,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뇌의 비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 자신과 자신의 내면세계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할 수 있으며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뇌에 대해 접근하면서 뇌 연구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으며, 인간의 성격과 인지형태, 지능, 감정과 행동 등 뇌에 관해 전반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살림刊·값4,800원>

■ 헤이안의 사랑과 풍류

이세 모노가타리

— 高善允 지음



백석에 술대 외국어학부 高善允(동양사학 84-88)겸임교수가 펴낸 연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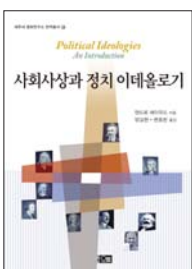
'이세 모노가타리(伊勢物語)'는 일본 詩歌인 와카(和歌)를 중심으로 1백25개의 짧은 이야기로 이뤄진 헤이안 시대(794~1185년)의 작품이다. 큰 골격은 아리와라 나리히라로 생각되는 남자의 일대기를 그리고, 동시에 미의식 '미야비'에 여과된 헤이안 당시의 이상적 인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책은 8개의 장을 통해 헤이안 시대 문학 세계의 미의식을 관통하는 '미야비'라는 이념에 접근한다. 20여 년에 걸친 저자의 세밀하고도 진솔한 연구를 통해 일상적 틀을 벗어난 마음의 흐름을 와카로 구현한 미야비 문학 '이세 모노가타리'를 이해함과 동시에 헤이안 시대 사랑과 풍류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 <제이앤씨刊·값24,000원>

■ 사회사상과

정치 이데올로기

— 梁佶炫·卞鍾憲 옮김



제주지부 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제주대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梁佶炫(정치 74-83)교수가 교육대학 卞鍾憲(국민윤리교육 83-87)교수와 함께 호주 퀸즐랜드

대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앤드류 하이우드의 저서를 우리말로 옮겼다.

정치학 연구자인 앤드류 하이우드가 쓴 이 책의 주요한 장점은 그가 이데올로기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으며, 또 고전적인 서구 이데올로기들의 다양한 특징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최근의 이데올로기적 사고의 방향과 새로운 논쟁점에 대해서도 인내심을 갖고 놀라운 정도로 명확하게 천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서출판 오름刊·값23,000원>

■ 바다 위의 소녀

— 정지현 옮김



프랑스 그르노블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정지현(본명 韓石賢 원자핵공학 99-06) 동문이 프랑스 시인이자 소설가인 쥘 슈페르비엘의 단편소설 12편을 번역했다.

우주적인 시적 세계를 구축한 쥘 슈페르비엘의 단편들은 불가사의한 세계를 무대로 전혀 예측하

공연

■ 徐允晉 피아노 독주회

— 5월 1일 금호아트홀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서 데뷔 무대를 가졌던 피아니스트 徐允晉(기악 94-98 울산대 외래교수) 동문(사진)이 5월 1일 오후 7시 30분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한다.

미국 텍사스주립대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연주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徐동문은 이날 바흐, 베토벤, 리스트 등의 작품으로 기량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부암아트 391-9631>

■ 蔡熙哲·魚秀禧 듀오 연주회

— 5월 2일 예술의 전당



첼리스트 蔡熙哲(기악 83-88 숙명여대 교수) 동문(사진上)과 피아니스트 魚秀禧(기악 85-89 단국대 강사) 동문(사진下)이 5월 2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에서 듀오 연주를 갖는다.

오스트리아 모차르테움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蔡熙哲·魚秀禧 동문 부부는 이날 베토벤, 슈니트케 등의 작품을 열연한다. <공연문의: 음연 3436-5929>

기 힘든 이야기가 펼쳐진다.

삶과 죽음, 동물과 인간, 현실과 몽상, 지상과 천상이 서로를 마주 대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해지는 저자의 '우주'로 들어가 '시적 환상'으로 채색된 기묘한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모션북스刊·값14,000원>

사회공헌 1위 은행
100%국내자본은행
고객 수 2700만명

NH농협은행이 고객님의 꿈을 응원합니다!

꿈을 향해 달려라

NH농협금융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증권
NH농협캐피탈
NH농협신용
NH-CA 자산운용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 회비 : 2014년 2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 (2014. 2. 6~3. 3) · 일반 (2014. 2. 6~3. 3)
원내 숫자 : 입학년도 (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평생회비

(이사) △강신향 문리49
△강진영 의대67 △고승의 경영74
△고인숙 인문72 △권명옥 공대76
△권영선 AMP3 △권오봉 ACPM6
△김 웅 HPM6 △김경수 경영78
△김병찬 의대53 △김부규 상대56
△김상수 약대66 △김양진 자연83
△김영도 AMP23 △김용희 음대81
△김재영 HPM18 △김준호大院86
△김창기 사회74 △김현식 자연91
△문윤봉 AMFR15 △박장수 공대63
△박창언 농대80 △송언기 AMP28
△송지훈 법대89 △심보선 사회88
△양승욱 의대06 △엄원근 자연77
△유경연 경영95 △윤수복 AMP63
△이강진 의대74 △이계용 ABP2
△이대승 문리66 △이지운 ACAD57
△전원배 인문73 △정문위 AIC30

△정용근 수의67 △주진학 법대54
△진운수 치대80 △최동건 상대70
△한천옥 사대71 △홍범교 사회78

(일반) △강선영 음대94
△고선주 생활84 △고송구 문리60
△공한철 GLP10 △구도훈 의대08
△권순화 공대64 △권택홍 사대68
△김국일 법대86 △김기동 문리65
△김기홍 공대74 △김매리 인문07
△김성환 의대03 △김수기 AIP14
△김용권 공대79 △김용수 상대56
△김용인 법대69 △김원석 공대10
△김은집 경영03 △김준식 자연91
△김지환 공대48 △김진아 약대87
△김치운 BCP9 △김태호 공대65
△김학중 농대87 △김함배 자연84
△김현주 농대03 △김휘배 약대65
△나만수 법대78 △나상현 자연03
△남상운 농대80 △남현선 사회05

△노성남 GLP27 △노재근 AMP42
△민응기 의대75 △박광표 공대47
△박동하 GLP27 △박민호 치대86
△박석환 AMP75 △박영철 상대58
△박재환大院81 △박정우 MBA10
△박정택 行院76 △박종로 공대01
△박찬우 공대92 △변정섭 공대05
△서규학 AMP14 △설미이 간호92
△손영수 사회87 △송 화 사회03
△송재봉 인문72 △신주희 법대08
△심수연 치대95 △심풍수 공대76
△안충현 의대03 △양동신 법대68
△양재욱大院85 △오현득 GLP13
△원현숙 약대53 △유광희 HPM30
△유규상 사대05 △유금종 SGS3
△유대진 상대51 △유박영 HPM30
△이 윤 문리61 △이경민 자유03
△이만수 공대66 △이봉휘 의대83
△이상동 GLP24 △이상욱 공대05
△이성재 문리59 △이승주 자연03
△이승필 농대83 △이신재 ACPM9

△이영태 HPM14 △이용진 경영03
△이윤호 법대86 △이종명 ACPM9
△이종철 공대06 △이현승 保院03
△이흥희 공대62 △임승웅 인문72
△임채원 공대04 △장윤정 行院10
△전문한 AMFR29 △전영기 공대76
△전팔근 사대47 △정 욱 HPM29
△정광섭 공대88 △정민경 간호08
△정선재 법대84 △정수년 음대82
△정연홍 농대57 △정조래 농대57
△조용찬 농대88 △조진표 FIP9
△주호필 AFB12 △진혜인 법대08
△차상훈 AIC33 △최동식 문리62
△최상원 경영01 △최연상 문리56
△최현정 농대93 △최호식 AMFR30
△최희철 공대63 △추교훈 ALP18
△표재홍 AFB9 △하 원 농대82
△허 준 공대04 △홍산운 생활57
△홍석진 사회74 △황보석 SPAR1
△황용수 공대79 △황인환 자연02

이 사

◆인문대 △김능구81 △김덕출81
△김병철76 △김종운75 △김희갑82
△오정택82 △윤재인80 △홍성윤73
◆사회대 △권민용86 △김대희81
△박홍배87 △신봉길74 △신철식73
△이건희73 △이주홍88 △장원영72
△정 도86 △정인익73 △차희원82
◆자연대 △권철만77 △백병화72
△이명웅77 △장대연74 △정민화84
△한창우75
◆경영대 △김명관82 △김용철83
△박훈기81 △백우현74 △이영민83
△임기찬90 △홍석주72
◆공대 △강경일75 △강구선63
△강남식73 △강달영87 △강순욱53
△고영주67 △곽상철76 △김경배68
△김경화65 △김광일81 △김노수45
△김범석92 △김성언71 △김성환66
△김유환62 △김인상67 △김정기68
△김제영71 △김종식77 △김종욱61
△김진근71 △김향준73 △문희성53
△박성규57 △박세형73 △박용일62
△박익승73 △박찬빈60 △박창용66
△박대권55 △박호경69 △박홍준71
△박황호65 △백성기67 △백형배47
△변영삼77 △변응현66 △변창훈70
△서태석76 △선석문68 △신철영70
△신항식67 △심한배71 △심혜경53
△안재휴52 △오성환59 △원정수53
△유병철42 △유재운78 △윤종섭84
△이근명63 △이범호54 △이병락68
△이상준76 △이상형68 △이영길74
△이영우79 △이원세71 △이중성61
△이창갑46 △이환범56 △이희달70
△임기석63 △임석철76 △장기욱53
△장진양67 △정한모71 △조광연70
△조덕상66 △조영호67 △지 순54
△최재열69 △최정욱49 △하준환51

△한영호69 △현희현59 △황이선62
◆농대 △강대구79 △김근영65
△김민수73 △김윤경70 △김종대72
△김종률72 △김택현78 △김태영82
△김풍진71 △김학주64 △변상지74
△손환규64 △신동현66 △신진섭78
△심용섭70 △양성용73 △오봉국48
△오세인55 △유병서59 △윤상철80
△이규재50 △이병일57 △이원규58
△이장섭52 △이재기53 △이정재69
△이희석57 △임봉주65 △임순만62
△전재성72 △정봉진73 △정재용79
△정진구65 △정창주53 △조선종84
△차성윤57 △한정남65
◆문리대 △고광운60 △구태희46
△권오득63 △김규상57 △김덕창59
△김상진71 △김용범60 △노재봉53
△박경석55 △박무중66 △박범진60
△방석기62 △방효선51 △신상우64
△신정용61 △이경현66 △이원영69
△이재형65 △이정길59 △장부일65
△장정환56 △정무호61 △최서영54
△최홍근70 △표원수67 △한우석50
△허운욱57 △홍두표55
◆법대 △강대석67 △강병섭68
△강신원72 △강용식58 △강희철75
△경종철60 △고의영77 △곽노준74
△곽현수72 △권광중61 △권혁채60
△김남근82 △김도연58 △김동원52
△김동호56 △김병구84 △김수철71
△김영상54 △김영훈54 △김용철46
△김우진83 △김의환81 △김인중56
△김재덕73 △김재호51 △김진태83
△김태현46 △김현석79 △김홍현67
△류기홍58 △문희상64 △민병권83
△민수명60 △박인수57 △박일환69
△박홍우72 △배용재74 △서상수80
△서상희68 △성문용63 △송병대67
△송인중56 △송진훈59 △신규태56
△심명수63 △심장수70 △안영도65
△안용득62 △양재택77 △여상조70
△오복동57 △우의형66 △유남석76
△유병환77 △윤교중65 △윤덕순59
△윤동운57 △윤성태61 △윤영철56
△윤장석89 △이대경77 △이동특59
△이백규83 △이병석54 △이상배58
△이상우57 △이성웅61 △이세복61
△이영범59 △이영준57 △이외수63
△이우근67 △이재방78 △이준상85
△임 경78 △임규운53 △장부용59
△장창호63 △전웅진49 △정세용74
△정용인60 △정은구58 △정철승89
△정한상50 △조남대83 △조남욱53
△조문부55 △조성제85 △조장혁90
△지관엽75 △최기정60 △최병덕72
△최병륜56 △최석문66 △최세관54
△최재훈49 △한덕수55 △한승희55
△홍세렬80 △황병인54 △황보중74
◆사대 △강병근67 △강영삼59
△구분형75 △구영주72 △국해웅63
△권 승76 △김남조47 △김상구60
△김성대59 △김영진51 △김재호53
△민경현53 △배영철79 △설동근68
△오윤용60 △유덕준60 △유재봉56
△이원호68 △이찬근74 △장준화83
△전성탁54 △전용근73 △조용복55
△최영상56 △표진이66 △황성욱60
△황재호61
◆상대 △강인식65 △계준혁48
△고두모67 △고병우52 △권영정72
△김중기54 △김중석65 △김창수66

interbiz

사람을 제일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 인터비즈시스템

스물다섯 인터비즈 뜨거운 젊음으로 도약하다!

SINCE 1989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잇는 인재관리전문기업 인터비즈가 창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젊은 청년의 패기와 열정으로 대한민국 비즈니스의 새 역사를 열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웃소싱 전문기업 - 인터비즈시스템
HR 아웃소싱 서비스 | 근로자 파견 서비스 | 헤드헌팅 서비스 | 채용대행 서비스 www.inter-biz.co.kr

(주)인터비즈시스템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6층(여의도동) 본사(관리) 02-799-7900 (영업) 02-799-7979

△김태두⁵⁰ △김호식⁷¹ △니길웅⁶¹
△남영태⁶⁵ △노인환⁵⁴ △배경일⁶⁹
△서정도⁶⁶ △손재환⁶⁹ △손희균⁴⁶
△송국현⁵⁶ △신세길⁵⁷ △심재엽⁶³
△우순구⁵³ △이관규⁶¹ △이상윤⁶²
△이세근⁶³ △이준용⁵⁶ △이철희⁵⁷
△이하룡⁶⁹ △이한희⁵⁴ △장만화⁵⁶
△장무환⁴⁵ △정태웅⁶⁷ △조중현⁶²
△최명해⁶⁸ △한찬수⁵⁴ △황동규⁶³
◆생활대 △우경자⁶¹ △이선영⁷⁸
◆수의대 △권순현⁷⁶ △김용팔⁷⁵
△김창윤⁵³ △김휘석⁷² △박희준⁶⁶
△신도균⁸¹ △이각모⁶⁴ △이도필⁴⁹
◆약대 △강석진⁵⁵ △김 유⁶⁰
△김선중⁶¹ △김성오⁸¹ △문원호⁶⁵
△박사룡⁶⁴ △박시우⁶⁹ △서석수⁵¹
△심규장⁷⁰ △양현하⁶⁶ △우재성⁷¹
△우중균⁶¹ △윤승로⁵⁶ △이가평⁶⁰
△이성구⁷³ △이세영⁵⁷ △임경택⁵²
△임상웅⁶⁰ △장용택⁵⁵ △조중현⁶⁸
△진 강⁵⁶ △최명식⁶⁴ △한규홍⁶⁴
◆음대 △김미경⁶⁹ △최준승⁶⁵
◆의대 △강일태⁷⁴ △고원순⁶⁸
△김근우⁶¹ △김명호⁶⁸ △김상은⁷⁷
△김인호⁷¹ △김창석⁸⁵ △김환규⁷⁸
△류지문⁵⁴ △문성무⁶⁰ △박경환⁷¹
△박동현⁷⁰ △박세용⁷⁶ △방성호⁶⁶
△서동희⁸⁸ △선우대환⁷¹ △송영주⁷⁴
△심웅석⁵⁹ △이관희⁷⁵ △이병훈⁶⁰
△이부영⁵² △이수철⁷¹ △장성근⁷¹
△전성환⁷⁴ △정명관⁹¹ △최규원⁵⁵
△홍기정⁸¹ △홍영수⁶⁶
◆치대 △권오양⁷⁴ △김병수⁸⁴
△김수남⁵⁹ △김영철⁶¹ △김윤영⁵⁸
△김진홍⁷⁸ △김현제⁸⁷ △김현태⁷⁶
△김현풍⁶⁰ △김휘철⁷⁰ △류남순⁷⁰
△민병덕⁶⁴ △박세운⁸⁶ △박용준⁵⁴
△백경동⁸⁶ △백성기⁷¹ △백순지⁶³
△백성동⁷⁸ △서영수⁶⁷ △손 근⁷¹
△손영경⁸⁶ △송영호⁵⁷ △윤동호⁸⁰
△윤철민⁸² △이복상⁸¹ △이성출⁷⁰
△이수구⁶⁶ △이용오⁶² △이원재⁷²
△이진근⁶³ △임순모⁷⁰ △임종수⁸¹
△정관서⁷⁹ △정종선⁵⁷ △정조길⁷¹
△한성훈⁶⁰
◆대학원 △가순일⁹⁴ △김성호⁸³
△문형근⁷⁹ △박종열⁷¹ △배명진⁸³
△송강영⁹¹ △윤용훈⁹⁷ △이시복⁵²
△최원희⁸¹ △하두봉⁵⁶
◆경대원 △양승현⁷¹ △임인규⁸⁸
◆보대원 △정두채⁸⁰ △정상호⁹⁹
◆사대원 △송정호⁶⁶ △정경식⁶³
◆신대원 △김이환⁷² △김희옥⁷⁶
◆행대원 △김덕중⁸² △김정응⁰⁵
△남호현⁸² △신순우⁷⁴ △양석호⁶⁷
△유정복⁸⁶
◆환대원 △김제성⁷⁸ △정병한⁶⁹
△황학래⁷⁴
◆AMP △권오영⁶⁴ △권용관⁵⁸
△김건종³⁸ △김구섭⁶⁶ △김영환³⁴
△김재옥¹¹ △김주현⁵⁰ △김중현⁴⁹
△김진찬⁴³ △노연웅⁴⁸ △문해란⁴⁵
△민경서⁴⁸ △민명술⁴² △박달용⁴
△박석휘⁵² △서종덕¹² △이규식⁵⁴
△이근호⁵² △이대영⁶⁷ △이병구¹⁶
△이원구⁵⁰ △이재형⁵⁹ △이태섭⁵
△장기홍⁸ △전해상⁷¹ △정석현⁴⁴
△한종희²⁸ △황복현⁴⁵ △황종갑⁵⁶
◆ACAD △김광철⁴⁷ △김용기⁶⁴
△김우연¹⁴ △김태완⁴⁴ △김태환³⁸
△박 현⁵⁵ △배윤도⁵⁴ △이 심³²

△이덕수⁴⁴ △정시채⁹ △진강현²⁰
△최종구⁶²
◆AIP △김동하²⁹ △김승겸¹⁶
△김장근¹⁵ △문일권³⁹ △박몽식¹⁶
△박양신²⁰ △박영기²⁹ △박용진³⁵
△박장식²⁷ △서영복¹⁹ △신용기⁹
△양 명⁹ △이득춘⁴⁰ △이석준²⁷
△이종호³¹ △전종윤¹⁰
◆ABP △김현운²⁰ △박대영³⁰
△이수연²³ △이관철³
◆SGS △고병준²² △김종호⁴
△손찬민²⁴ △이창섭⁷ △정병재⁵
△황종현¹⁸
◆HPM △김경태¹⁰ △김정자²⁰
△김홍구¹² △노동일⁷ △방금석²
△백성길⁴ △사재훈²⁰ △손규호¹¹
△양동근¹² △양통권²³ △이석태²³
△이철희⁴ △조경순¹² △최봉영²²
△황경수²³
◆AMPP △류귀식⁷
◆AIC △백재현⁴ △장낙진¹³
◆AFB △이동락¹
◆AMPFRI △강동원²⁷ △김경호¹⁵
△김병문¹⁷ △김일동⁸ △신연경²²
△유영기²³ △이규태¹⁴ △이태갑¹⁴
△정지택³
◆ACPM △김정식³ △박상남³
△이영수³ △이종수¹ △정일주¹
△하대정⁵
◆FIP △양태운⁴ △우영대⁷
△이재병¹
◆GLP △금상연¹⁹ △김경식²
△김병윤¹⁶ △김영훈¹⁸ △김형중¹⁷
△이준형⁵
◆ALP △권영상¹ △김재현²
△손용근⁶
◆SPARC △권세원¹⁶ △김학준¹⁶
△백인호¹⁸ △석종호¹⁹ △송인철¹⁴
△임장주¹¹
◆AFP △조원국⁵
◆ASP △채수철¹⁵
◆IFP △김용배² △한민석³
◆BCP △최연매²

일 반

◆인문대 △고아림⁰⁸ △국순엽⁸⁰
△김대환⁸⁴ △김성환⁰⁶ △김영인⁷⁹
△김정호⁸⁰ △김정호⁹⁰ △김현동⁰⁴
△오선아⁰⁵ △윤대근⁸¹ △윤희경⁰¹
△이명관⁸¹ △이민주⁰⁶ △이흥균⁷¹
△임인호⁸⁴ △진지은⁰⁵ △최완석⁹⁸
△하정숙⁸² △허기원⁹⁸ △홍재범⁸⁶
◆사회대 △구현희⁰³ △김 선⁰⁷
△김 열⁷⁰ △김보민⁹⁶ △김서유⁸²
△김석기⁷⁸ △김현균⁰³ △박근원⁰³
△박준서⁸⁰ △안백훈⁸¹ △유연정⁰⁷
△유지열⁸⁴ △윤지영⁰⁷ △이석홍⁸²
△임영택⁸⁰ △장희철⁰⁴ △전재호⁹⁵
△전주현⁹⁰ △조현진⁸⁵ △주홍민⁹¹
△최문성⁰⁴ △최철영⁸³
◆자연대 △김두현⁹⁰ △김영찬⁰⁶
△김태원⁹³ △김효중⁸⁴ △김훈민⁰¹
△김희웅⁸³ △노동진⁸⁹ △박대열⁶⁸
△박용진⁹⁹ △엄상영⁷⁷ △윤다정¹¹
△이병홍⁶⁶ △이선주⁰⁵ △이은진⁰⁸
△이창규⁹¹ △이창현⁰⁰ △이혜지¹¹
△임영익⁸⁹ △장원석⁹⁶ △전동오⁸⁴
△전성준⁸¹ △전세영⁰⁸ △전희진⁰²
△정 황⁷² △조성현⁰⁸ △최유경⁰⁸
△황열순⁸⁶

◆간호대 △김매자⁶⁰ △김채숙⁶⁶
△박현태⁹⁹ △염윤정⁰⁶ △윤미여⁷⁶
△조절자⁶²
◆경영대 △강민선⁸³ △고광호⁸⁵
△김상윤⁰² △김성민⁰⁰ △김성환⁰⁷
△김지현⁸⁸ △류상기⁷⁸ △모영철⁸⁸
△안철환⁸⁸ △장보훈⁸³ △장성욱⁹⁸
△정광현⁰⁴
◆공대 △강봉돈⁷¹ △강영택⁶³
△강용규⁵² △공완식⁰⁶ △공철규⁵⁷
△곽창환⁰¹ △권기정⁶⁷ △권순영⁵²
△김경민⁰² △김경준⁰³ △김규남⁴⁷
△김대웅⁵² △김동주⁵³ △김병렬⁷⁶
△김상규⁵⁹ △김상식⁵⁸ △김생빈⁵⁴
△김세영⁷⁰ △김세준⁸³ △김양후⁰⁵
△김영권⁸³ △김영상⁰⁵ △김영환⁵⁰
△김용구⁷⁶ △김용익⁵⁰ △김정훈⁰³
△김종윤⁹³ △김채식⁵⁴ △김태환⁶⁶
△류종희⁵³ △문인삼⁵⁵ △문종규⁵⁸
△박경호⁷³ △박동재⁵¹ △박동정⁵⁴
△박승오⁶⁹ △박영규⁵⁸ △박영순⁵⁴
△박용기⁷¹ △박인오⁸³ △박정주⁷⁸
△박준민⁹⁹ △박희전⁰⁷ △방정섭⁶²
△백사익⁴⁰ △백효석⁶² △성준호⁰⁴
△손지호⁰² △송병륜⁰⁵ △송선후⁵⁷
△신건학⁵⁶ △신동엽⁰⁰ △신상묵⁷³
△신상호⁵⁴ △심재한⁵³ △안상복⁶⁸
△양정훈⁰² △엄승호⁷⁸ △오승용⁰⁵
△오희근⁸¹ △우상렬⁵² △우세훈⁷⁵
△유무웅⁵⁸ △유봉환⁵⁶ △유송현⁹⁹
△윤남하⁵¹ △윤재준⁶⁰ △이기영⁰³

△이동규⁰⁸ △이병무⁶¹ △이승무⁶¹
△이승욱⁰⁵ △이영창⁸⁷ △이원진⁸⁹
△이유진⁶³ △이재준⁰³ △이재흥⁷¹
△이정민⁵² △이정준⁰¹ △이종규⁵⁷
△이종수⁶⁵ △이종수⁸² △이지환⁰⁴
△이지훈⁰⁴ △이진열⁷⁰ △이진표⁰⁷
△이창민⁰² △이태민⁸⁵ △이태종⁷⁷
△이현식⁶¹ △이호현⁵¹ △이화준⁶⁹
△이효일⁶² △임종영⁵⁰ △임항빈⁸³
△장상배⁸² △장재명⁵⁷ △장홍규⁵⁴
△전상수⁷² △전승현⁰⁷ △정건식⁵⁵
△정광섭⁷² △정대환⁶⁵ △정재호⁸⁸
△정태식⁹² △정현철⁵³ △정호규⁸⁰
△조 만⁵⁶ △조건일⁶² △조득호⁶⁶
△조래승⁵⁶ △조영선⁶³ △조응현⁵⁶
△조종현⁴⁶ △조현제⁰⁷ △채수창⁶²
△최국봉⁴⁷ △최석주⁵¹ △최지형⁰⁰
△추성원⁰⁶ △하경표⁸⁹ △홍성철⁸⁷
△홍순일⁵³ △황정성⁵⁹
◆농대 △강경원⁵² △강원봉⁷⁷
△강원우⁶⁰ △강인목⁵⁴ △공민영⁰⁵
△권상대⁶¹ △권용민⁰⁷ △권혁세⁵⁴
△김관선⁵⁸ △김병윤⁵⁵ △김연표⁵¹
△김영길⁵³ △김우석⁶⁴ △김원수⁵⁶
△김응년⁶⁵ △김정교⁴⁹ △김종성⁵⁵
△김종천⁵³ △김진오⁶⁹ △김진웅⁶⁰
△김진철⁵¹ △김태희⁵⁷ △김한석⁶⁶
△노재흥⁵⁶ △도현성⁰³ △류충렬⁷⁴
△민두식⁵⁴ △민영준⁴⁸ △박관식⁵⁴
△박숙규⁴⁸ △박양문⁵⁵ △박재욱⁵⁹
△박정수⁶¹ △박종국⁵⁷ △서성원⁹³

△손성호⁵⁸ △손진규⁸² △송다해⁰⁷
△송삼석⁵³ △송준종⁵⁵ △신민식⁵⁷
△신민종⁷⁹ △안종성⁷⁴ △양범산⁵⁵
△양종성⁵⁷ △오무영⁵⁵ △오준석⁷²
△오희정⁵⁷ △우무일⁶⁴ △우정식⁵³
△유광일⁶⁶ △유신상⁵⁶ △유중철⁵⁷
△유형준⁰³ △윤용건⁵² △이건우⁵²
△이기순⁶⁹ △이기환⁵⁵ △이도천⁵⁵
△이민정⁰³ △이상욱⁵⁶ △이수욱⁵⁵
△이승찬⁶⁵ △이인형⁵⁶ △이종렬⁵⁰
△이종현⁸⁰ △이종기⁵⁵ △이택규⁶³
△이형주⁷⁷ △이홍복⁵⁶ △임성빈⁵⁷
△장성구⁷³ △전남수⁵⁴ △장관모⁵⁴
△정동성⁵⁷ △정승모⁵⁰ △정승우⁰²
△정연석⁴⁸ △정정택⁷⁰ △조규열⁵²
△조규탁⁸⁶ △조한보⁴⁸ △조한욱⁵³
△진영호⁶⁶ △최동열⁵⁰ △최상수⁶³
△최영대⁹⁵ △최영일⁴⁶ △한상욱⁵⁵
△한정식⁷¹ △한중희⁵⁷ △한준연⁵²
△홍순일⁶³
◆문리대 △곽광수⁵⁹ △김계란⁵²
△김동진⁶² △김명수⁵⁴ △김명정⁶⁴
△김선리⁶⁴ △김성기⁶⁰ △김옥남⁵²
△김종휘⁵⁶ △김준기⁶¹ △김한배⁶⁷
△도태균⁶³ △도홍길⁶¹ △류지웅⁵¹
△박대일⁶¹ △박상우⁵⁸ △박상태⁵⁹
△박애주⁴⁷ △박옥출⁴⁸ △박종민⁵⁴
△박창고⁵⁹ △박홍규⁶² △백영근⁵⁵
△서인수⁵⁰ △서창모⁶¹ △손후엽⁶¹
△송하영⁵⁸ △신동철⁵⁸ △심사수⁵⁴
△안남순⁵⁴ △안상경⁵⁴ △오재규⁵²

사람과 정보를 잇다

(주)퓨처누리는
사람과 정보를 잇는 시스템과 서비스 제공으로,
인류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행복한 사람들의 일터입니다.

전자도서관 솔루션 납품 | 유관분야 시스템 통합 | 시스템 유지보수

 Futurenuri®
퓨처누리

△유정열⁵² △윤임구⁶¹ △이규증⁵⁵
△이근택⁶⁶ △이덕주⁶⁶ △이문구⁵⁹
△이수호⁴⁹ △이시종⁶⁷ △이영재⁶²
△이용웅⁶⁵ △이원희⁵⁵ △이정덕⁵⁵
△이정배⁵⁶ △이정훈⁵⁷ △이진택⁴⁷
△이진희⁵⁴ △이택휘⁵⁷ △장종학⁵⁹
△전만수⁵⁵ △전종현⁵⁵ △정 탄⁶⁵
△정기호⁵⁰ △정서웅⁶² △정일영⁴⁷
△조무현⁶⁸ △조성술⁵³ △조용직⁶⁰
△차상철⁶⁵ △차효인⁶¹ △최 진⁵⁶
△최남준⁵⁶ △최용욱⁵² △홍경화⁵⁴
△홍성표⁵⁹ △홍승호⁵⁹
◆미대 △김경숙⁶³ △김희춘⁶²
△박연도⁵⁶ △백명진⁷² △이다미⁹⁵
△이화영⁰⁸ △장정학⁶⁰ △정병구⁶⁶
△정영조⁵⁵ △정종미⁷⁶ △조 윤⁵⁹
△조재구⁶⁰
◆법대 △강이수⁵⁸ △김근태⁴⁹
△김기경⁸⁵ △김기동⁸³ △김보환⁶¹
△김선중⁷⁰ △김성룡⁶⁰ △김성엽⁸³
△김승중⁶⁸ △김양섭⁹⁰ △김용제⁵³
△김용환⁵² △김재규⁴⁹ △김정유⁸⁴
△김준섭⁰⁴ △김창기⁵¹ △김철진⁵⁰
△김평남⁵⁰ △김현민⁶¹ △남우현⁹⁹
△노병준⁵⁷ △노승행⁵⁸ △노창호⁵⁴
△류준형⁵¹ △박상형⁴⁸ △반성우⁵³
△배상오⁵⁵ △배성범⁸⁰ △백덕열⁶⁷
△백영철⁶⁸ △서승완⁵⁸ △서재덕⁰²
△송경숙⁹¹ △신원도⁸⁷ △신현무⁵⁸
△안기영³⁶ △안변일⁶¹ △안재영⁷⁰
△오재선⁶¹ △오정돈⁷⁹ △원은섭⁶³

△이 흥⁶² △이강수⁵³ △이상기⁵⁹
△이상용⁶⁷ △이순복⁵⁴ △이용규⁸⁸
△이종문⁵⁶ △이하우⁵⁸ △이한춘⁵³
△임순목⁵³ △전제균⁰⁶ △정경용⁶⁵
△정의식⁸³ △정종현⁶⁰ △정학철⁶⁴
△조근호⁷⁷ △조성기⁶⁸ △조영목⁰²
△조왕제⁵⁵ △조용한⁷⁹ △조주은⁵⁶
△주경진⁵⁵ △최강섭⁷⁸ △최성진⁸⁴
△최우식⁷⁵ △최중현⁵⁹ △최형준⁵¹
△허 균⁴⁹ △허승태⁷³ △현희남⁵⁷
△황도연⁵² △황중우⁸⁶
◆사대 △강길선⁵⁷ △강한필⁵⁹
△고웅섭⁵⁴ △고준식⁵¹ △구사용⁵¹
△권문한⁷⁴ △김윤상⁹⁹ △김남훈⁷³
△김병성⁶³ △김봉민⁵³ △김상수⁵⁷
△김상현⁰⁷ △김수연⁸⁷ △김영석⁶⁴
△김영철⁶⁴ △김우탁⁵⁷ △김재성⁷⁹
△김재은⁵⁰ △김증자⁶¹ △김진원⁵⁶
△김태영⁵⁶ △김항원⁶⁵ △김형구⁵⁶
△민혜식⁵² △박영목⁵⁶ △박제동⁷⁰
△박종삼⁵⁹ △박종서⁵⁷ △박종식⁷⁴
△박주해⁵⁰ △방영선⁷⁵ △방재근⁶²
△봉정모⁷² △서건룡⁶⁰ △서부원⁵³
△성기종⁵⁴ △송승석⁵¹ △신동순⁵³
△신문섭⁶⁰ △신승기⁸³ △신용국⁵⁵
△신태우⁵⁸ △신희균⁵⁸ △안규철⁵⁸
△안석로⁵³ △안종만⁵³ △안희익⁵⁴
△유완수⁵⁵ △윤백중⁵⁵ △윤희태⁹⁹
△이미선⁷⁹ △이상욱⁵¹ △이성구⁶⁴
△이승립⁶⁶ △이승우⁶¹ △이완식⁶¹
△이재선⁰¹ △이주옥⁹⁷ △이주형⁶³

△이진영⁵¹ △이현규⁶² △이현택⁵³
△이환배⁵⁴ △임상순⁶⁰ △임원종⁵²
△임학수⁶⁹ △정수목⁷⁶ △정호경⁵²
△제욱례³³ △조정제⁵³ △조현철⁹²
△조희식⁵⁴ △진원우⁷² △최병호⁵⁷
△최생인⁵³ △최안기⁷⁰ △최용섭⁵⁴
△최원규⁵⁸ △하만현⁵⁰ △하봉욱⁶²
△한상현⁶⁸ △한원영⁴⁹ △홍정희⁵⁵
△황남택⁶⁴ △황석근⁵¹
◆상대 △권영진⁵⁸ △김방지⁵⁶
△김범수⁵⁷ △김선태⁶² △김영무⁵⁶
△김은수⁵⁰ △김이규⁵⁰ △김종희⁶⁵
△김진주⁶⁰ △문학모⁵⁸ △박병환⁵⁰
△박순태⁵⁶ △박좌용⁴⁸ △배선홍⁴⁹
△변원욱⁴⁹ △신중현⁵⁶ △신후성⁵⁵
△안기봉⁵⁵ △양재욱⁵³ △여윤봉⁵⁷
△오장환⁵⁴ △유근성⁶⁶ △유방창⁶¹
△윤여훈⁶⁷ △이강진⁷¹ △이경모⁵²
△이계식⁵⁶ △이동훈⁵⁰ △이병국⁵²
△이성열⁶⁹ △이성재⁵³ △이세장⁵⁵
△이영주⁵³ △이재등⁵⁷ △이종연⁵²
△이흥근⁷⁰ △전수영⁵⁷ △전장원⁵⁶
△정경완⁵⁵ △정상진⁴⁹ △정상철⁶⁰
△정세진⁵³ △정인성⁷¹ △조동화⁵⁵
△채수한⁵⁶ △최병로⁴⁹ △최준철⁵⁹
△홍성표⁵⁹ △황규백⁶³
◆생활대 △곽정현⁰⁴ △김보람⁹⁸
△김윤정⁹³ △안은정⁰³ △오경숙⁸²
△유경순⁵⁸ △임인순⁵⁸ △채미희⁷⁷
◆수의대 △고의식⁵⁶ △권순기⁵⁷

△김영목⁵¹ △김태훈⁰³ △남궁선⁵⁷
△목선균⁶⁹ △박종영⁶¹ △백영환⁵⁶
△서동일⁵⁵ △오동훈⁰⁸ △오화균⁸⁸
△원병희⁶⁰ △윤영원⁶³ △전원표⁵⁶
△정용면⁵³ △정진화⁵² △조수식⁵²
△한인식⁶⁴
◆약대 △김규상⁵⁶ △강석훈⁰⁴
△권창호⁴⁷ △김규형⁵³ △김기현⁵²
△김만국⁴⁷ △김병규⁶⁸ △김삼영⁵⁸
△김양오⁶⁰ △김원보⁵³ △김태환⁰⁷
△문창규⁵⁹ △박태동⁷⁷ △손선일⁵⁹
△안양찬⁵³ △윤은정⁰³ △윤홍중⁵⁵
△이상구⁵⁸ △이석구⁶² △이재은⁵⁵
△이재호⁷² △이해정⁴⁶ △임준영⁰⁸
△임준형⁰⁰ △장봉수⁶¹ △채계화⁵¹
△최건혁⁷⁰ △한방숙⁶⁶ △홍옥선⁵⁵
△황용연⁹¹
◆음대 △김영숙⁵⁵ △김은경⁵⁷
△김태정⁸⁶ △김현이⁸² △김형규⁶⁰
△문혜신⁹⁴ △박성진⁰² △오동일⁵⁴
△오미혜⁷¹ △유정민⁸⁷ △이동남⁶⁶
△이정현⁹⁷ △장진선⁰⁶ △전신주⁶⁷
△한혜자⁶¹
◆의대 △권영길⁴⁷ △김경국⁷³
△김선민⁰⁰ △김용진⁶⁹ △김진국⁵²
△김청수⁶⁸ △김태운⁶⁹ △남궁권⁶⁷
△노호근⁵⁶ △박성근⁸⁹ △박수영⁰⁵
△박용수⁸⁵ △박용재⁶⁵ △배진선⁵⁸
△백만기⁴³ △서창석⁷⁹ △신요철⁵⁴
△신용찬⁵⁴ △신종근⁸⁷ △유종근⁷¹
△유형록⁵⁷ △이상림⁴⁶ △이진오⁵⁸
△임승재⁷⁵ △정요한⁵¹ △조병주⁴⁶
△차원보⁵³ △최관홍⁵² △최덕영⁵⁸
△최병휘⁷³ △한승석⁰¹ △홍순원⁴⁹
△황순욱⁷²
◆치대 △강민섭⁸¹ △강인희⁷⁷
△김교식⁷² △김규순⁶⁸ △김기수⁷⁸
△김상세⁶⁰ △김선일⁵⁸ △김시영⁰⁰
△김원경⁸² △문정광⁶¹ △송병욱⁶⁵
△유동수⁵² △유치린⁵⁸ △이교인⁶⁵
△이상태⁷⁰ △이영희⁵⁶ △이준기⁵⁵
△이호상⁹³ △임형우⁵⁷ △정관희⁶¹
△조영진⁸² △조창홍⁴⁶ △최병건⁵⁵
△한성희⁹² △홍현종⁸²
◆대학원 △김재웅⁷² △김현택⁸²
△모수미⁷⁵ △윤제범⁸² △장인정⁸¹
△최연희⁸³ △한상서⁹⁵ △한성수⁸⁰
△황종로⁸⁰
◆경대원 △박정수⁹³ △신인철⁶⁸
◆MBA △김동일¹⁰
◆보대원 △구근화⁶⁷ △김귀향⁷⁹
△김영웅⁷⁵ △서은하⁹⁶ △신금호⁷²
△신학균⁶⁰ △이지은⁰⁶ △이현영⁰³
△장재필⁰³ △정건작⁸⁷ △한서경⁶⁵
◆신대원 △윤임술⁶⁹
◆의대원 △송진화⁰³
◆행대원 △김경섭⁷³ △김광림⁸⁰
△김육진¹² △김재윤⁸³ △박찬도⁶⁴
△서일수⁶⁷ △이석암⁷⁸ △채희성⁷¹
△최찬섭¹¹ △허성두⁷¹
◆한대원 △강덕원⁸⁵ △강은순⁷⁴
△박은혜⁰⁸ △윤화일⁷⁹ △조민정¹¹
◆AMP △가갑순¹⁸ △구종태⁴⁵
△김 건⁶⁹ △김경환³¹ △김관수⁶¹
△김교철²⁵ △김배호⁵² △김성식⁴⁴
△김정규²⁴ △김준화¹⁸ △김치근⁷
△김택동⁶⁸ △니의수³⁸ △박근학⁵¹
△박성규¹⁵ △박영대¹ △박우선⁶¹
△박인석⁵³ △박종원⁴⁸ △박중서¹¹
△방상우³¹ △손재환⁴⁸ △신석균²⁴
△신종식⁶⁴ △심갑보³ △오도환⁷²

△오동빈²² △우병일⁷⁴ △유상욱³⁹
△윤승철⁷³ △이규관³⁷ △이상락⁷³
△이정희⁶⁴ △이준환⁶⁹ △정기택³¹
△정동락⁵² △정상봉²⁴ △조인수⁷⁴
△최병택⁶ △한지훈⁵⁴
◆AIP △고순란⁴⁷ △구왕현¹²
△김규현²⁷ △김대원⁴⁸ △김순택⁶
△김재호¹⁶ △김형일⁴¹ △마재관²²
△박남규⁴⁷ △유준중¹⁴ △이기선⁴⁷
△이두정⁴⁸ △이석원³⁶ △이세광⁴³
△이창범²² △정주용³⁷ △조경석⁴⁸
△조일래⁴¹ △조창식⁴⁵ △지경택⁴
△한옥문⁴⁵
◆ACAD △고세일³² △김달술²
△김영준³¹ △김진섭³⁸ △문동신⁵⁵
△손정식⁴⁴ △신정수¹² △심재금⁷³
△안신환³⁴ △양 은⁷⁵ △유재필²³
△이상철³³ △이종우⁶³ △이필우³³
△이학동⁴⁴ △전형일¹² △조남조¹⁵
△조옥식¹⁶ △최병길¹¹ △최봉인³¹
△한동수⁷³
◆ABP △구태균⁷ △박귀남²⁸
△박길태¹¹ △박형규²⁰ △서재선⁴⁰
△심상렬²³ △유영희³⁹ △유충열²⁹
△이현구³⁹
◆SGS △임영화²⁷
◆APC △권정민¹³ △권혁면¹⁸
△박희제¹² △신현주¹⁸ △이동백¹⁵
△조성구⁷ △최준하¹¹ △황수경⁸
◆HPM △김병민²⁵ △소정룡²⁰
△신현희²⁰ △이난영²⁶ △최인현³⁰
◆AMPP △박영제¹⁴ △부원찬¹³
△손명호¹² △이종만⁵ △조현국¹²
△최익현²
◆AIC △구자영¹⁰ △김동구¹³
△김석영²⁵ △이현태²¹ △정장환¹¹
△조현호³² △현 덕³⁵
◆AFB △김진웅¹² △방주득¹¹
△안순율⁸ △유동우¹⁰ △조수환¹²
△최동진¹¹ △허준서¹³
◆AMPFRI △신도범⁷ △유찬중³⁰
◆ACPM △강희양¹⁰ △두강현¹⁰
△문성호⁹ △박정규¹⁰ △성창진¹⁰
△손명익¹⁰ △송계점¹⁰ △오인환⁹
△이경범⁹ △정주영¹⁰ △정행엽¹⁰
△조종수¹
◆FIP △이인화⁵
◆GLP △김옥정¹⁰ △남호동²⁰
△박옥영¹⁴ △박홍순²⁷ △박희순¹²
△신계철²⁷ △심상운¹⁴ △이승묵²⁷
△이정우¹³ △이효승²⁶ △정학섭¹⁵
△한남석²⁷
◆ALP △박영숙¹⁶ △이내형¹⁷
△조호석¹⁸ △최종환¹⁵
◆ASP △김선주⁷ △김영봉²³
△노경학²¹ △성순경¹⁰ △신종한²⁴
△이 범¹⁸
◆IFP △권영용⁶ △노일호⁹
◆BCP △임운균¹²
◆ABKI △강신우² △김길현³
△류종기⁴ △장오환⁴ △최인숙³
◆KFL △백미혜¹¹



상장기업
KRX 코스닥시장

2012년 3월 코스닥 시장 상장
www.kfte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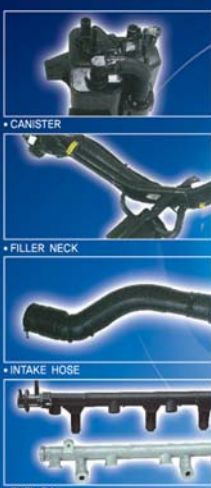
The World Best Quality

KFTC Automotive Fuel / Interior System Supplier
업계최고의 기술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한 **코리아에프티**는 미래를 내다보며 중국 인도, 폴란드 공장을 설립, 글로벌 기업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세계 일류 상품 인증

글로벌 경영 대상 수상

FUEL SYSTEM



- CANISTER
- FILLER NECK
- INTAKE HOSE
- FUEL RAIL

INTERIOR PARTS



- DUCT ASSY - CONN & DEFROSTER
- SUN SHADE
- PHIL ASSY - CLUSTER FACIA ,LHD/RHD
- TRIM ASSY - RR PLR,LH/RH

Global Manufacturing



China Factory (BKFTC)



India Factory (KFTI)



Poland Factory (KFTP)

코리아에프티 주식회사
본사 및 연구소: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섬비위길 23
TEL : 070-7093-1500 FAX: 031-650-1517
판 교 사 무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에이치 스퀘어S동 901호
TEL : 070-7093-1300 FAX: 031-789-3990

MAIN CUSTOMERS


안성 공장: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섬비위길 23
중국 공장: BEIJING, CHINA

공도 공장: 경기도 안성시 공도를 기업단지 122-12
인도 공장: CHENNAI, INDIA

경주 공장: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화산공단길 247-70
폴란드 공장: ZABRZE/ZORY, POLAND

2014년 2월	
연 회 비	115,430,000
평생회비	51,030,000
입 회 비	280,000
계	166,740,000
2014년 누계	268,430,000

결혼의 달인 중매대통령 차일호 중매의 신화3700쌍 성혼

4월 우먼센스 352~353P 참조

ROTC장교 임관 73월기 부대장 예편
국내 최고재벌 회장 및 언론사 사주
대통령 비서실장, 재단이사장, 병원장
미스코리아, 2000억대 무남독녀 및
VIP500여쌍 등 모두 약3,700쌍 중매

현대 · 신세계 백화점
2013년 10월 9일 ~ 12월 14일
행복한 결혼비법강의

tvN **함성인** 200회 출연
jtbc **김국진의 현장박치기**
아리랑TV **코리아투데이**
TV조선 **행복결혼위원회**
MBC **월화수목** **중매대통령**
맞선 세 번, 짝 찾는다!!

세상에서 중매 최고 뉴욕타임즈 소개
법조인, 의사, 공무원, 회사원, 교사,
약사, 유학생, 사업가 환영!

공사총각 000명 단체가입



89년 KBS자니윤쇼 출연

차니윤쇼에 차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중매를 제일 잘한다고 소개되었다.

차일호교수TV에 92회 출연

차일호 회장의 명성은 뉴욕타임즈에 소개되었고, "KBS자니윤쇼", "아침마당", "아침을 달린다", "SBS세븐데이즈", "행복찾기", "결혼만들기" MBC "임성훈의 좋은 아침" 등 TV에 92회 출연하여 방송과 신문에 한국 최고결혼정보 회사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차교수는 방배동에서 29년동안 방배결혼정보회사를 하고 있고 H대학 교수로 6년 전까지 재직하다가 퇴임을 하고 현재는 명예 교수로 각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

중매박사 척 보면 압니다

군복무시육군참모총장이들 중매를 계기로 군에서 20여쌍 중매를 성사시켜서 '중매대장'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 스님 아버지에게 배운 관상을 접목해 중매기술을 익혀 성혼률이 높다. 차회장은 "사진만 봐도 두사람이 어울리는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중매를 서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이혼율이 아주 적습니다."

사비 털어 베트남 한인2세 결혼

차일호 교수는 가난해서 결혼을 못하는 불쌍한 베트남 한인2세 36쌍 합동 결혼식 모든 비용을 자기아파트를 팔아서 결혼시켰다.



2013년 4월 29일 오전 8시 30분 ~ 9시 30분 **KBS** **아침마당** 출연

이혼 증가 재혼 급증

지금은 1년 이내에 이혼하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인격과 건강, 삶에 대한 성실성 등이 가장 중요하다. "재혼은 초혼과 다릅니다. 돈을 보고 재혼을 하면 결혼 후 돈 때문에 다시 헤어집니다." 한번 실패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과 재혼해서 팔자를 고쳐 보겠다는 환상을 없애야 제2의 실패가 없다.

아주 별난 중매도 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벌집 아들이 백화점에 쇼핑갔다가 군대가기 전 헤어진 첫사랑을 닮은 백화점 여종업원을 중매를 부탁하여 결혼시켰다

배우자의 선택은 조건보다 진실

일시적인 감정이나 조건, 경제력 혹은 외모 어느 한가지에 치중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방배결혼정보회사

(02) 582-6000

방배결혼은 오직 하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4-1번지 200호 서초No : 080020

기술유라 품질유라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2013년 8억불 수출의 탑 수상



유라코퍼레이션

회장 엄 병 윤

(외교학과 60년 졸업)

- 와이어링 하네스(Wiring Harness) ■ 스마트 정션박스(Smart Junction Box)
- 차량통신시스템(Invehicle Network System) ■ 자동차 전장모듈(Electronic Module)
- 고전압 HEV 커넥터(High Voltage HEV Connector)

❖ 본사・공장 : TEL 070)7878-2400 / FAX 043)238-8599

❖ 유라R&D센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08

TEL 070)7878-1000 / FAX : 031)780-6801 www.yuracorp.co.kr

